

myFord

2013 AUTUMN



Think and Look Forward Fusion

스타일만큼이나 뛰어난 성능, 친숙한 편안함과 첨단 기술의 편리함을 모두 갖춘 퓨전 시승기.

포드 이스케이프와 떠난 춘천 여행

산자수명한 풍경과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미식 공간까지. 춘천 특유의 감성이 어우러진 여행의 순간.

Night Drive in the City

서울의 밤, 북악스카이웨이와 남산 소월길의 근사한 야경을 감상하며 포드의 베스트셀링 패밀리 세단 토러스를 타고 달려 보았다.



Go Further



THE ORIGINAL - THE LUGGAGE WITH THE GROOVES

In 1950, RIMOWA issued the first suitcase with the unmistakable grooves. Since then, it has evolved into a cult object in its own right. To this day, the original RIMOWA luggage has lost none of its fascination. It remains the luggage of choice for all those who seek the extraordinary - including models Alessandro Ambrosio and Johannes Huebl.

RIMOWA Stores Korea: 청담본점 02-546-3920, 신사스토어 02-540-3920, 갤러리아 WEST 02-6905-392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744, 본점 02-3438-6142
롯데백화점 본점 02-2118-6077, 부산본점 051-810-3166, 선릉시티 051-730-3253, AK-몰라지 분당점 031-8023-2166, 롯데면세점 본점 02-759-6649, 김포공항점 02-2569-6728 www.rimowa.com



Germany since 1898



사랑하는 포드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덥다는 올해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중 이맘때에만 만날 수 있는 강렬한 햇빛이 당연하게 생각되면서도 청량한 가을바람이 절실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포드코리아는 수입차 시장의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올-뉴 플러그인 올-뉴 이스케이프 등 지난 한 해 많은 화제와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신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랠리카의 DNA를 품고 있는 월드 베스트셀링 모델 포커스 디젤을 우리나라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포드자동차는 US 뉴스 선정 '최고 가치를 지닌 자동차', 패스트컴퍼니 선정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 2년 연속 '올해의 엔진상'에 등극한 에코부스트 1.0 엔진 등 품질과 혁신,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전 세계 고객과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내 수입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많았습니다. 포드의 변화와 성장은 그 보도의 중심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로, 지속적인 신차 투입으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한편, 기술적 우위를 넘어 혁신적 디자인과 고객 편의성 확대로 대변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 역시 성장의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업계 5위권으로 진입한 이후, 5월에는 1995년 포드 국내법인 설립 이래 최고의 월 판매 기록을 세우고 2개월 만에 다시 이를 경신했습니다. 또 누적 판매율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43% 늘어 성장가도를 달리는 타 브랜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꾸준히 달려온 그동안의 노력이 고객 여러분께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한편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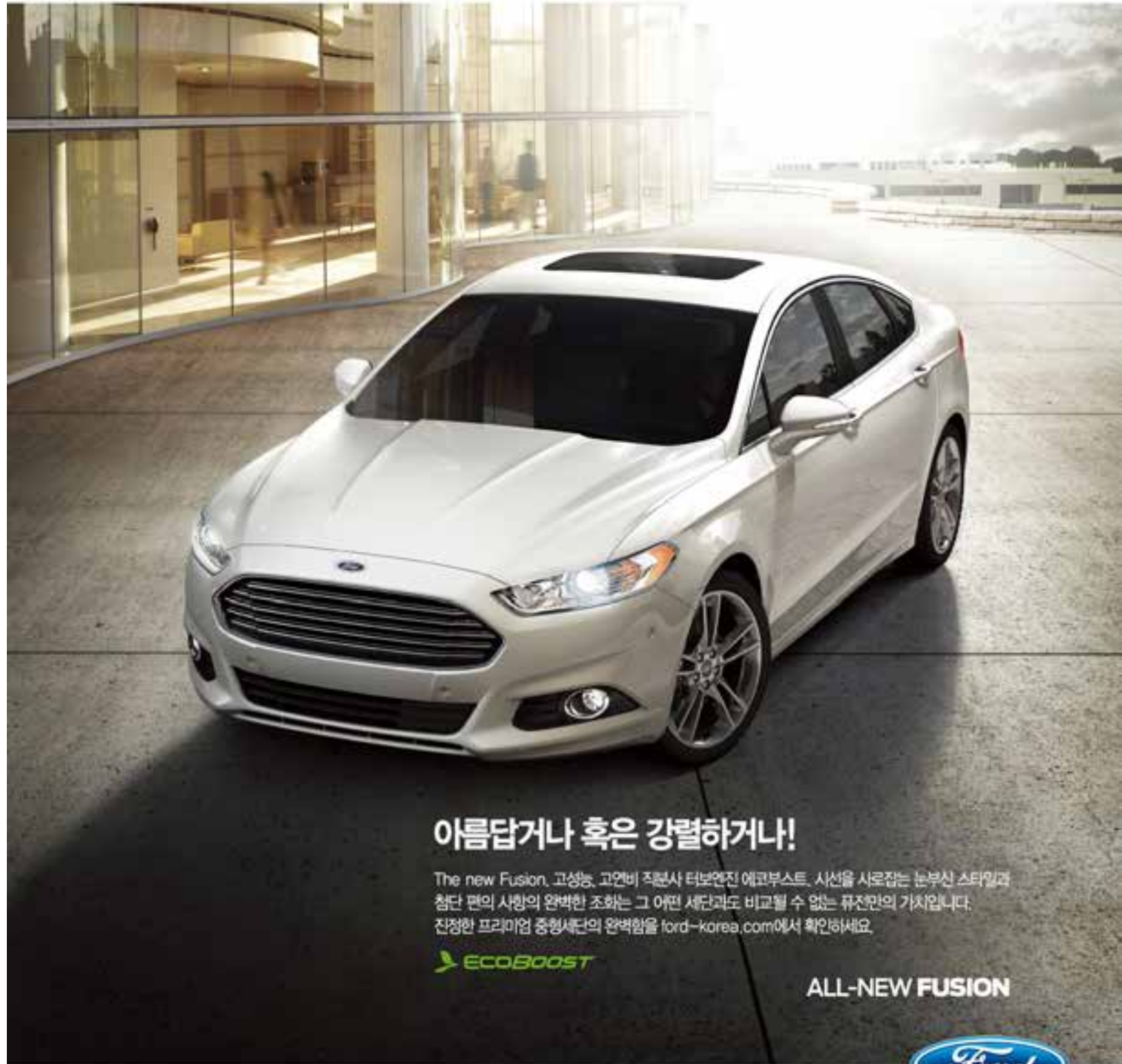
고객에게 최고의 차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역시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 모터쇼를 통해 수많은 고객이 포드의 다양한 모델을 경험했고, TV 광고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페이스북 등 적극적인 SNS 활동으로 다양한 계층의 고객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까이, 편리하게 포드를 만날 수 있는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역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11년간 지속해온 풀뿌리 환경보호 활동 지원 프로그램 ‘포드 그랜츠’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학협동과 유방암 예방 캠페인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울타리 안에 공존하는 모범적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가장 혁신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소유의 기쁨을 만끽하고 자랑할 수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포드코리아는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사장 정재희



서초	02)535-3800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강남	02)6929-3000	송파	02)6928-3000	강북	02)2246-2100
강서	02)2063-63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평촌	031)425-2212	인천	032)832-0001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부산	051)758-0075	부산	051)741-5114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illegible]

Contents

myFord

2013 AUTUMN

Play with Ford

04 CEO Message

가장 혁신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더욱 자리매김하기 위해 포드코리아는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08 Ford Story_ 헨리 포드 탄생 150주년

2013년은 포드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가 탄생한 지 150주년 되는 해다. 미국에서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의 남다른 업적과 일대기를 살펴본다.

10 Ford With Movie_ Ford, Ready and Action!

흥미진진한 추격전과 액션 신은 물론, 스토리 전개의 중요한 오브제로 사용된 포드 자동차의 영화 속 활약상.

12 Smart&Technology_포드의 특별한 기술

럭셔리 SUV를 넘어서는 익스플로러의 수십 가지 옵션. 이 중 파워볼드와 뒷자석 안전벨트 에어백만 봐도 그 혁신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남는다.

13 Car Care Tip_ 스마트한 가을철 차량 관리 요령

여름 내내 뜨거운 햇살과 장마에 노출된 차량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가을이다.

14 Focus on_ Ken Block Drifting on Ford Fiesta

모터스포츠에 관심 있는 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켄 블록.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화끈한 드리프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그를 조명한다.

16 New Ford Life_ 엔진으로 열어가는 자동차의 미래

기술린 터보, 디젤, 하이브리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앞서는 선두주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포드 엔진의 첨단 기술.

20 Ford to Ford_ Heritage of Mustang

미국인에게 머스탱이라는 이름은 전설이나 다름없다. '포니 카'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미국 스포츠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머스탱의 역사를 돌아보자.

24 Driving 1_ Fusion

스타일만큼이나 뛰어난 성능, 친숙한 편안함과 첨단 기술의 편리함을 모두 갖춘 퓨전 시승기.

28 Take 5_ Move Your Perfect Fusion

자동차가 꿈꿀 수 있는 모든 상상. 2013 올-뉴 퓨전의 첨단 테크놀로지는 이것조차 뛰어넘는다. 퓨전 에코부스트의 진면목 다섯 가지.

30 Driving 2_ Focus Diesel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포커스. 독일 디젤 엔진의 기술력으로 힘과 연비 모두를 잡은 포커스 디젤의 매력 속으로.

32 Gourmet Road_이스케이프와 떠난 춘천 여행

많은 이들이 청춘과 낭만을 상징하는 곳으로 춘천을 떠올린다. 산자수명한 풍광과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미식 공간까지. 춘천 특유의 감성이 어우러진 여행의 순간.

38 Theme Travel with Ford_ Evos in Berlin

포드 콘셉트카 에보스와 함께 독일 베를린의 유서 깊은 유적지 곳곳을 둘러보았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떠나는 베를린 여행기.

42 Driving Course_ Night Drive in the City

서울의 밤, 북악스카이웨이와 남산 소월길의 근사한 야경을 감상하며 포드의 베스트셀링 패밀리 세단 토라스를 타고 달려 보았다.

People

46 Ford Interview_선인자동차 장인우 대표

올 2월 취임한 장인우 대표이사. 포드의 비전과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그에게서 신뢰로 뚫뚫 뚫친 진정한 딜러십의 모습을 보았다.

48 Celebrity Interview_ 아티스트 윤한

익스플로러와 함께한 아티스트 윤한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만난다.



Trendy

52 Ford Guy_ Exploring the Guy's Car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매일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익스플로러. 차를 닦은 개성 뚜렷한 다섯 오너의 차 안을 들여다봤다.

58 Beauty_ Secret of Moist Men

여름 내내 강한 자외선으로 각질까지 두꺼워진 남성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팁.

60 Gift Item_ Luxury Wine for Gift

받는 사람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선물을 고르는 데 와인만 한 아이템도 없다. 스토리와 품격을 전하는 명품 와인 리스트.

62 Drive Music_My First Acid Jazz

애시드 재즈 하면 떠오르는, 혹은 꼭 들어봐야 할 명반을 모았다.

63 Ford Choice_ Ford's Special Collection

포드만의 세련된 감각이 묻어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Life Style

64 Chef's Table_ Seasonal Gourmet

가을 제철 재료로 만든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총주방장 안드레아스 크랭플의 네 가지 요리.

68 Ford Place_ Great Space

플래그십 스토어, 멀티숍, 레스토랑과 카페, 갤러리 등 도산공원 포드 강남 신사 전시장 주변의 핫 플레이스 탐방기.

70 Outdoor Leports_ Enjoy Yacht

바다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요트는 이제 더 이상 특정인만이 누리는 레저가 아니다. 각광받는 레포츠로 떠오른 요트를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72 Golf Tour_ Black Stone Exclusive Golf Club Icheon

명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바느질처럼 어느 한 곳 소홀함 없는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으로 떠난 골프 투어.

76 Class_ 호감형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라

당신만의 남다른 매력과 신뢰감으로 비즈니스의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

77 Book_ Fall in Literature

이 가을, 당신의 감성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시, 소설 등 문학작품을 소개한다.

78 Ford News

포드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를 다루는 페이지.

80 Ford Lineup

포드 전차종 제원 정보.

발행일 2013년 09월

발행처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8층

기획 · 편집 (주)엠큐브파트너스 02-548-1601 디자인 (주)128프로젝트 02-2051-1050

인쇄 (주)미래엔 02-3475-3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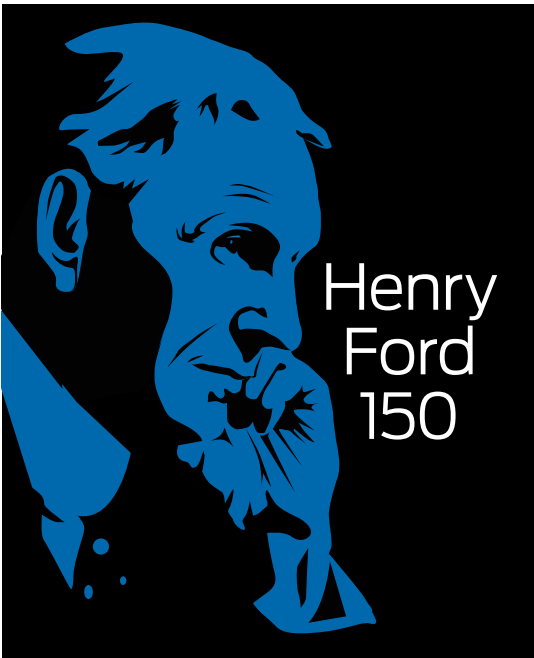
〈myFord〉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2013년은 포드자동차(Ford Motor Company)의 설립자 헨리 포드가 탄생한 지 150주년 되는 해다. 미국에서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 이는 헨리 포드가 단순히 포드자동차 설립자 이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남다른 업적과 일대기를 살펴본다.

Editor 이희진 참고 서적 《헨리 포드》 헨리 포드 저, 21세기북스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다 헨리 포드 탄생 150주년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는 자동차를 최초로 만든 사람도, 가장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를 '자동차 왕'이라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헨리 포드의 업적이 자동차 시장과 역사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포드자동차는 1903년 6월 16일, 디트로이트의 작은 사무실에 모인 11명이 뜻을 모아 탄생시켰다.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할 당시 자동차는 아무나 탈 수 없는 사치품이나 다름없었다.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구입하기 힘들 만큼 비싼 가격이었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이런 상황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5%가 아닌 95%를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이는 그의 출생과도 관련이 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포드는 농업에 종사하는 아일랜드 이민자로 자동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달리 일찍부터 기계와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1891년 에디슨 전기회사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입사 후 뛰어난 기술력과 강한 탐구심으로 빠르게 승진한 그는 자택 뒤편에 작업장을 만들어 내연 엔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32세에 타이어를 사용한 사륜구동 자동차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는 40세에 포드자동차를 설립했고, 부사장 겸 선임 엔지니어 직책을 맡게 된다. 1908년까지 포드자동차는 모델 A부터 S까지, 알파벳을 딴 자동차를 개발했다. 어느 날 헨리 포드가 한 의사에게 자동차 한대를 팔았다. 그 광경을 본 노동자가 동료와 농담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 그러자 동료가 대답했다. "간단해 지금부터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24시간 내내 일만 하는 거야. 5년이면 차 한대는 거뜬하게 살 수 있을 걸." 이 말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웃지 않았다. 그는 대신 구두닦이도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내겠다고 결심했다.

4년 후 포드의 T형 자동차가 출시되었다. 가격은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무려 80%나 싼다. 누구나 575달러만 내면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차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매진되었다. 훗날 포드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한날 농담일지라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면 비즈니스의 영감을 일깨우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이 결과 많은 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었고, 이는 자동차가 소수 귀족과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역사를 마감하는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헨리 포드는 일반 대중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과 내구성, 정비가 쉬운 단순한 엔진 구조의 T 모델을 내놓기 위해 생산 공정 단순화와 합리화를 통해 오직 이 모델만을 위해 생산 공정을 표준화했다. 1913년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조립 공정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 자동차 대량생산의 시대를 열었다. 컨베이어 공정으로 1914년 포드자동차는 경쟁 자동차 회사가 6만6350명의 직원으로 연간 28만 대를 생산한 데 반해 1만3000명의 직원으로 30만 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라인 생산 시스템 등장 이전에는 825달러였던 T 모델의 가격이 400달러까지 저렴해졌다.

헨리 포드는 노동자까지 포용한 기업인으로도 유명하다. 1914년 1월 5일, 헨리 포드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하루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최저 임금을 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5달러의 날'인데, 당시 동종 업계의 하루 평균 임금이 2.34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이른다. 1919년에는 6달러로, 1929년에는 9달러로 인상했다. 또 포드는 이민자, 흑인, 여성, 전과자, 장애인 고용에도 앞장섰다. 1914년 하이랜드 파크 공장에 영어 랭귀지 스쿨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시설을 마련한 것. 헨리 포드가 일궈낸 이러한 노동 환경 개선은 오늘날 부의 재분배와 미국의 중산층을 확대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ALL-NEW LINCOLN MKZ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 플루이드 모션의 감성이 살아있는 공기역학적인 바디라인과 링컨 스피릿 워그릴의 조화는 마음까지 설레게 합니다. 또한, 링컨 MKZ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압도적 스케일의 선루프까지. 이처럼 섬세한 디테일은 아름다움을 넘어,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전혀 새롭게, 당신처럼 완벽해진 올 뉴 링컨 MKZ

lincoln-korea.com



송파	02)6828-3000	당배	02)6929-3000	신사	02)3444-1300	성명	02)3442-2300	서초	02)5335-3800	강북	02)2246-2100	강서	02)2063-6300
구리	031)8034-1000	영광	031)822-1000	평촌	031)425-2212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인천	032)832-0001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울산	052)261-3388
청원	055)715-5000	대전	051)741-5114	대전	051)758-0075								

본사(서울) 02)6828-3000, 02)6828-3001, 02)6828-3002, 02)6828-3003, 02)6828-3004, 02)6828-3005, 02)6828-3006, 02)6828-3007, 02)6828-3008, 02)6828-3009, 02)6828-3010, 02)6828-3011, 02)6828-3012, 02)6828-3013, 02)6828-3014, 02)6828-3015, 02)6828-3016, 02)6828-3017, 02)6828-3018, 02)6828-3019, 02)6828-3020, 02)6828-3021, 02)6828-3022, 02)6828-3023, 02)6828-3024, 02)6828-3025, 02)6828-3026, 02)6828-3027, 02)6828-3028, 02)6828-3029, 02)6828-3030, 02)6828-3031, 02)6828-3032, 02)6828-3033, 02)6828-3034, 02)6828-3035, 02)6828-3036, 02)6828-3037, 02)6828-3038, 02)6828-3039, 02)6828-3040, 02)6828-3041, 02)6828-3042, 02)6828-3043, 02)6828-3044, 02)6828-3045, 02)6828-3046, 02)6828-3047, 02)6828-3048, 02)6828-3049, 02)6828-3050, 02)6828-3051, 02)6828-3052, 02)6828-3053, 02)6828-3054, 02)6828-3055, 02)6828-3056, 02)6828-3057, 02)6828-3058, 02)6828-3059, 02)6828-3060, 02)6828-3061, 02)6828-3062, 02)6828-3063, 02)6828-3064, 02)6828-3065, 02)6828-3066, 02)6828-3067, 02)6828-3068, 02)6828-3069, 02)6828-3070, 02)6828-3071, 02)6828-3072, 02)6828-3073, 02)6828-3074, 02)6828-3075, 02)6828-3076, 02)6828-3077, 02)6828-3078, 02)6828-3079, 02)6828-3080, 02)6828-3081, 02)6828-3082, 02)6828-3083, 02)6828-3084, 02)6828-3085, 02)6828-3086, 02)6828-3087, 02)6828-3088, 02)6828-3089, 02)6828-3090, 02)6828-3091, 02)6828-3092, 02)6828-3093, 02)6828-3094, 02)6828-3095, 02)6828-3096, 02)6828-3097, 02)6828-3098, 02)6828-3099, 02)6828-3100, 02)6828-3101, 02)6828-3102, 02)6828-3103, 02)6828-3104, 02)6828-3105, 02)6828-3106, 02)6828-3107, 02)6828-3108, 02)6828-3109, 02)6828-3110, 02)6828-3111, 02)6828-3112, 02)6828-3113, 02)6828-3114, 02)6828-3115, 02)6828-3116, 02)6828-3117, 02)6828-3118, 02)6828-3119, 02)6828-3120, 02)6828-3121, 02)6828-3122, 02)6828-3123, 02)6828-3124, 02)6828-3125, 02)6828-3126, 02)6828-3127, 02)6828-3128, 02)6828-3129, 02)6828-3130, 02)6828-3131, 02)6828-3132, 02)6828-3133, 02)6828-3134, 02)6828-3135, 02)6828-3136, 02)6828-3137, 02)6828-3138, 02)6828-3139, 02)6828-3140, 02)6828-3141, 02)6828-3142, 02)6828-3143, 02)6828-3144, 02)6828-3145, 02)6828-3146, 02)6828-3147, 02)6828-3148, 02)6828-3149, 02)6828-3150, 02)6828-3151, 02)6828-3152, 02)6828-3153, 02)6828-3154, 02)6828-3155, 02)6828-3156, 02)6828-3157, 02)6828-3158, 02)6828-3159, 02)6828-3160, 02)6828-3161, 02)6828-3162, 02)6828-3163, 02)6828-3164, 02)6828-3165, 02)6828-3166, 02)6828-3167, 02)6828-3168, 02)6828-3169, 02)6828-3170, 02)6828-3171, 02)6828-3172, 02)6828-3173, 02)6828-3174, 02)6828-3175, 02)6828-3176, 02)6828-3177, 02)6828-3178, 02)6828-3179, 02)6828-3180, 02)6828-3181, 02)6828-3182, 02)6828-3183, 02)6828-3184, 02)6828-3185, 02)6828-3186, 02)6828-3187, 02)6828-3188, 02)6828-3189, 02)6828-3190, 02)6828-3191, 02)6828-3192, 02)6828-3193, 02)6828-3194, 02)6828-3195, 02)6828-3196, 02)6828-3197, 02)6828-3198, 02)6828-3199, 02)6828-3200, 02)6828-3201, 02)6828-3202, 02)6828-3203, 02)6828-3204, 02)6828-3205, 02)6828-3206, 02)6828-3207, 02)6828-3208, 02)6828-3209, 02)6828-3210, 02)6828-3211, 02)6828-3212, 02)6828-3213, 02)6828-3214, 02)6828-3215, 02)6828-3216, 02)6828-3217, 02)6828-3218, 02)6828-3219, 02)6828-3220, 02)6828-3221, 02)6828-3222, 02)6828-3223, 02)6828-3224, 02)6828-3225, 02)6828-3226, 02)6828-3227, 02)6828-3228, 02)6828-3229, 02)6828-3230, 02)6828-3231, 02)6828-3232, 02)6828-3233, 02)6828-3234, 02)6828-3235, 02)6828-3236, 02)6828-3237, 02)6828-3238, 02)6828-3239, 02)6828-3240, 02)6828-3241, 02)6828-3242, 02)6828-3243, 02)6828-3244, 02)6828-3245, 02)6828-3246, 02)6828-3247, 02)6828-3248, 02)6828-3249, 02)6828-3250, 02)6828-3251, 02)6828-3252, 02)6828-3253, 02)6828-3254, 02)6828-3255, 02)6828-3256, 02)6828-3257, 02)6828-3258, 02)6828-3259, 02)6828-3260, 02)6828-3261, 02)6828-3262, 02)6828-3263, 02)6828-3264, 02)6828-3265, 02)6828-3266, 02)6828-3267, 02)6828-3268, 02)6828-3269, 02)6828-3270, 02)6828-3271, 02)6828-3272, 02)6828-3273, 02)6828-3274, 02)6828-3275, 02)6828-3276, 02)6828-3277, 02)6828-3278, 02)6828-3279, 02)6828-3280, 02)6828-3281, 02)6828-3282, 02)6828-3283, 02)6828-3284, 02)6828-3285, 02)6828-3286, 02)6828-3287, 02)6828-3288, 02)6828-3289, 02)6828-3290, 02)6828-3291, 02)6828-3292, 02)6828-3293, 02)6828-3294, 02)6828-3295, 02)6828-3296, 02)6828-3297, 02)6828-3298, 02)6828-3299, 02)6828-3300, 02)6828-3301, 02)6828-3302, 02)6828-3303, 02)6828-3304, 02)6828-3305, 02)6828-3306, 02)6828-3307, 02)6828-3308, 02)6828-3309, 02)6828-3310, 02)6828-3311, 02)6828-3312, 02)6828-3313, 02)6828-3314, 02)6828-3315, 02)6828-3316, 02)6828-3317, 02)6828-3318, 02)6828-3319, 02)6828-3320, 02)6828-3321, 02)6828-3322, 02)6828-3323, 02)6828-3324, 02)6828-3325, 02)6828-3326, 02)6828-3327, 02)6828-3328, 02)6828-3329, 02)6828-3330, 02)6828-3331, 02)6828-3332, 02)6828-3333, 02)6828-3334, 02)6828-3335, 02)6828-3336, 02)6828-3337, 02)6828-3338, 02)6828-3339, 02)6828-3340, 02)6828-3341, 02)6828-3342, 02)6828-3343, 02)6828-3344, 02)6828-3345, 02)6828-3346, 02)6828-3347, 02)6828-3348, 02)6828-3349, 02)6828-3350, 02)6828-3351, 02)6828-3352, 02)6828-3353, 02)6828-3354, 02)6828-3355, 02)6828-3356, 02)6828-3357, 02)6828-3358, 02)6828-3359, 02)6828-3360, 02)6828-3361, 02)6828-3362, 02)6828-3363, 02)6828-3364, 02)6828-3365, 02)6828-3366, 02)6828-3367, 02)6828-3368, 02)6828-3369, 02)6828-3370, 02)6828-3371, 02)6828-3372, 02)6828-3373, 02)6828-3374, 02)6828-3375, 02)6828-3376, 02)6828-3377, 02)6828-3378, 02)6828-3379, 02)6828-3380, 02)6828-3381, 02)6828-3382, 02)6828-3383, 02)6828-3384, 02)6828-3385, 02)6828-3386, 02)6828-3387, 02)6828-3388, 02)6828-3389, 02)6828-3390, 02)6828-3391, 02)6828-3392, 02)6828-3393, 02)6828-3394, 02)6828-3395, 02)6828-3396, 02)6828-3397, 02)6828-3398, 02)6828-3399, 02)6828-3400, 02)6828-3401, 02)6828-3402, 02)6828-3403, 02)6828-3404, 02)6828-3405, 02)6828-3406, 02)6828-3407, 02)6828-3408, 02)6828-3409, 02)6828-3410, 02)6828-3411, 02)6828-3412, 02)6828-3413, 02)6828-3414, 02)6828-3415, 02)6828-3416, 02)6828-3417, 02)6828-3418, 02)6828-3419, 02)6828-3420, 02)6828-3421, 02)6828-3422, 02)6828-3423, 02)6828-3424, 02)6828-3425, 02)6828-3426, 02)6828-3427, 02)6828-3428, 02)6828-3429, 02)6828-3430, 02)6828-3431, 02)6828-3432, 02)6828-3433, 02)6828-3434, 02)6828-3435, 02)6828-3436, 02)6828-3437, 02)6828-3438, 02)6828-3439, 02)6828-3440, 02)6828-3441, 02)6828-3442, 02)6828-3443, 02)6828-3444, 02)6828-3445, 02)6828-3446, 02)6828-3447, 02)6828-3448, 02)6828-3449, 02)6828-3450, 02)6828-3451, 02)6828-3452, 02)6828-3453, 02)6828-3454, 02)6828-3455, 02)6828-3456, 02)6828-3457, 02)6828-3458, 02)6828-3459, 02)6828-3460, 02)6828-3461, 02)6828-3462, 02)6828-3463, 02)6828-3464, 02)6828-3465, 02)6828-3466, 02)6828-3467, 02)6828-3468, 02)6828-3469, 02)6828-3470, 02)6828-3471, 02)6828-3472, 02)6828-3473, 02)6828-3474, 02)6828-3475, 02)6828-3476, 02)6828-3477, 02)6828-3478, 02)6828-3479, 02)6828-3480, 02)6828-3481, 02)6828-3482, 02)6828-3483, 02)6828-3484, 02)6828-3485, 02)6828-3486, 02)6828-3487, 02)6828-3488, 02)6828-3489, 02)6828-3490, 02)6828-3491, 02)6828-3492, 02)6828-3493, 02)6828-3494, 02)6828-3495, 02)6828-3496, 02)6828-3497, 02)6828-3498, 02)6828-3499, 02)6828-3500, 02)6828-3501, 02)6828-3502, 02)6828-3503, 02)6828-3504, 02)6828-3505, 02)6828-3506, 02)6828-3507, 02)6828-3508, 02)6828-3509, 02)6828-3510, 02)6828-3511, 02)6828-3512, 02)6828-3513, 02)6828-3514, 02)6828-3515, 02)6828-3516, 02)6828-3517, 02)6828-3518, 02)6828-3519, 02)6828-3520, 02)6828-3521, 02)6828-3522, 02)6828-3523, 02)6828-3524, 02)6828-3525, 02)6828-3526, 02)6828-3527, 02)6828-3528, 02)6828-3529, 02)6828-3530, 02)6828-3531, 02)6828-3532, 02)6828-3533, 02)6828-3534, 02)6828-3535, 02)6828-3536, 02)6828-3537, 02)6828-3538, 02)6828-3539, 02)6828-3540, 02)6828-3541, 02)6828-3542, 02)6828-3543, 02)6828-3544, 02)6828-3545, 02)6828-3546, 02)6828-3547, 02)6828-3548, 02)6828-3549, 02)6828-3550, 02)6828-3551, 02)6828-3552, 02)6828-3553, 02)6828-3554, 02)6828-3555, 02)6828-3556, 02)6828-3557, 02)6828-3558, 02)6828-3559, 02)6828-3560, 02)6828-3561, 02)6828-3562, 02)6828-3563, 02)6828-3564, 02)6828-3565, 02)6828-3566, 02)6828-3567, 02)6828-3568, 02)6828-3569, 02)6828-3570, 02)6828-3571, 02)6828-3572, 02)6828-3573, 02)6828-3574, 02)6828-3575, 02)6828-3576, 02)6828-3577, 02)6828-3578, 02)6828-3579, 02)6828-3580, 02)6828-3581, 02)6828-3582, 02)6828-3583, 02)6828-3584, 02)6828-3585, 02)6828-3586, 02)6828-3587, 02)6828-3588, 02)6828-3589, 02)6828-3590, 02)6828-3591, 02)6828-3592, 02)6828-3593, 02)6828-3594, 02)6828-3595, 02)6828-3596, 02)6828-3597, 02)6828-3598, 02)6828-3599, 02)6828-3600, 02)6828-3601, 02)6828-3602, 02)6828-3603, 02)6828-3604, 02)6828-3605, 02)6828-3606, 02)6828-3607, 02)6828-3608, 02)6828-3609, 02)6828-3610, 02)6828-3611, 02)6828-3612, 02)6828-3613, 02)6828-3614, 02)6828-3615, 02)6828-3616, 02)6828-3617, 02)6828-3618, 02)6828-3619, 02)6828-3620, 02)6828-3621, 02)6828-3622, 02)6828-3623, 02)6828-3624, 02)6828-3625, 02)6828-3626, 02)6828-3627, 02)6828-3628, 02)6828-3629, 02)6828-3630, 02)6828-3631, 02)6828-3632, 02)6828-3633, 02)6828-3634, 02)6828-3635, 02)6828-3636, 02)6828-3637, 02)6828-3638, 02)6828-3639, 02)6828-3640, 02)6828-3641, 02)6828-3642, 02)6828-3643, 02)6828-3644, 02)6828-3645, 02)6828-3646, 02)6828-3647, 02)6828-3648, 02)6828-3649, 02)6828-3650, 02)6828-3651, 02)6828-3652, 02)6828-3653, 02)6828-3654, 02)6828-3655, 02)6828-3656, 02)6828-3657, 02)6828-3658, 02)6828-3659, 02)6828-3660, 02)6828-3661, 02)6828-3662, 02)6828-3663, 02)6828-3664, 02)6828-3665, 02)6828-3666, 02)6828-3667, 02)6828-3668, 02)6828-3669, 02)6828-3670, 02)6828-3671, 02)6828-3672, 02)6828-3673, 02)6828-3674, 02)6828-3675, 02)6828-3676, 02)6828-3677, 02)6828-3678, 02)6828-3679, 02)6828-3680, 02)6828-3681, 02)6828-3682, 02)6828-3683, 02)6828-3684, 02)6828-3685, 02)6828-3686

포드는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모델을 여럿 남겼다. 그리고 이 멋진 명차들은 한 시대를 풍미한 영화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흥미진진한 추격전과 액션 신은 물론, 스토리 전개에 중요한 오브제로 사용되는 진중한 모습까지. 어떤 배우 못지않은 포드의 영화 속 활약상을 소개한다.

Editor 강미라

Ford, Ready and Action!



영 화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포드는 단연 머스탱이다. 출시 첫날 2만2000대를 선주문했고, 첫해 40만 대 이상 팔리는 기록을 세운 머스탱은 1999년 세기의 자동차로 선정될 만큼 기념비적 모델이다.

1974년 제작한 영화 <식스티 세컨즈>에는 1967년형 쉘비 머스탱 GT500이 등장한다. 이 영화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으로 2000년 리메이크했다. 차량 도둑의 일인자인 주인공이 동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72시간 동안 50대의 슈퍼카를 훔쳐야 하는 내용. 49대는 쉽게 훔치지만 마지막 남은 한 대가 난제다. 그 차가 바로 쉘비 머스탱 GT500. 페라리, 포르쉐 등 내로라하는 슈퍼카가 여러 대 등장하지만 머스탱이 유독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이 눈에 띈다.

1968년 제작한 범죄 영화 <블리트>에는 1968년형 머스탱 GT390이 무려 9분 동안 자동차 추격 신을 선보인다. 감독인 피터 에이츠는 모터스포츠 선수들의 스텐트 매니저로 일한 경력을 활용해 생생한 추격 장면을 연출해냈다. 머스탱의 독특한 엔진 소리와 배기음, 타이어를 태우며 회전하는 250도 번아וט 장면은 머스탱의 판매고를 올리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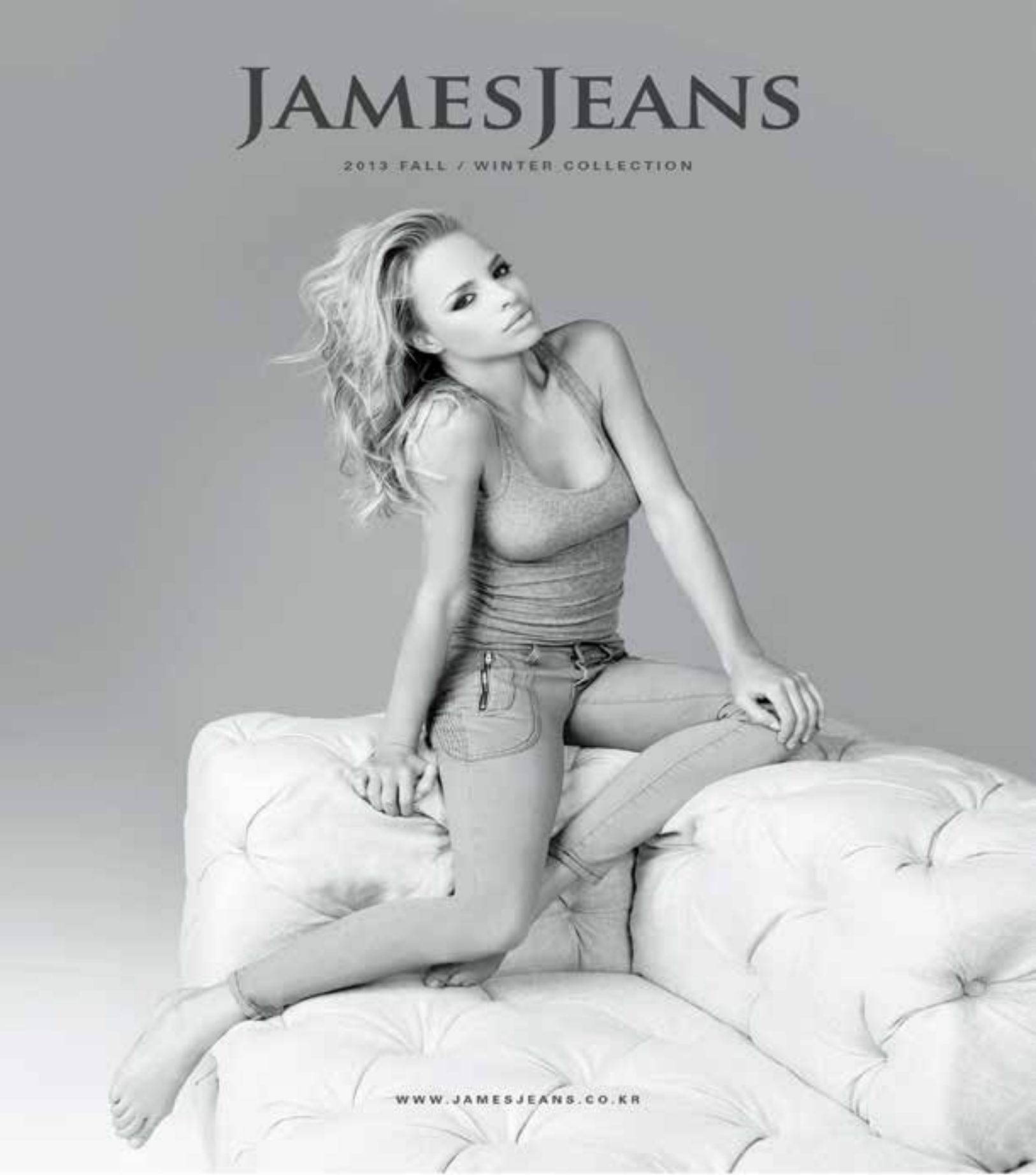
인공지능 자동차 '키트'가 등장해 19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외화 시리즈 <전격 Z작전> 역시 머스탱과 인연이 깊다. 당시 키트는 폰티악 파이어버드 3세대를 개조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리메이크된 <전격 Z작전>에서는 폰티악이 아닌 2008년형 쉘비 코브라 GT500KR로 키트의 모델 교체가 이뤄졌다.

2011년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영화 <드라이브>는 2011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완성도 높은 할리우드 액션 영화다. 역시 짜릿한 추격전이 나오는데, 2011년형 포드 머스탱 GT가 사용됐다. 주인공이 머스탱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외에도 머스탱은 영화 007 시리즈 중 <골드핑거>를 비롯해 2007년 <나는 전설이다>에서 주인공의 애마로 등장하는 등 총 500여 편에 달하는 영화에 모습을 드러내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한 자동차'라는 기록을 세웠다.

물론 머스탱 외 다른 모델도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8년 영화 <그리스>의 1948년형 포드 디럭스, 1970년대 미국 TV 시리즈 <스타스키와 허치>에 1976년형 포드 그랜토리노 등이 그것이다. 1979년에 개봉한 영화 <매드 맥스>는 당시 23세의 신인배우였던 멜 깁슨이 등장하는데, 그의 극 중 직업은 강력계 순찰대원. 그가 몰고 다니는 경찰차가 바로 1973년형 포드 팔콘 XB GT351 쿠페다. 2009년 영화 <그랜 토리노>에는 1972년형 포드 그랜 토리노가 등장한다. 전 세계 1000여 대만 생산한 모델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기한 주인공 윌트가 포드에 평생을 바쳐 일하며 직접 조립한 차량이 중요한 미장센으로 등장하는 영화다.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여러 국내 드라마에서도 다양한 포드 모델을 만날 수 있었다.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해운대 연인들>, <지고는 못살아>, <뽕파이어검사2>, <돈의 화신>을 비롯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결혼의 여신>, <오로라 공주>, <왕가네 식구들> 등에서도 포드의 다양한 모델이 캐릭터의 특성을 빛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SUV의 진정한 가치를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발견했다. 럭셔리 SUV를 넘어서는 익스플로러의 수십 가지 옵션. 이 중 파워폴드와 뒷자석 안전벨트 에어백만 봐도 그 혁신을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다.
Editor 강미라

포드 익스플로러 파워폴드&뒷자석 안전벨트 에어백



익스플로러는 SUV의 역사다. 1991년 최초로 출시한 이후 전 세계에서 600만 대 넘게 팔렸다. 미국 시장에 SUV가 뿌리 내리게 된 원조 격. 2011년에는 동급 최고 연비와 퍼포먼스, 모노코크 바디 채용으로 뛰어난 온로드 주행 성능, 승차감과 안정성이 뛰어난 것을 인정받아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한마디로 최고의 SUV라는 의미이자 영예다. 처음엔 포드 익스플로러의 거대하면서 세련된 퍼포먼스에서 풍기는 강력한 매력에 사로잡힌다. 그다음엔 넉넉한 실내 공간에 놀라고, 어느새 편안한 주행 감각과 세단보다 안정적인 승차감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수십 가지 풍부한 옵션이 아무리 타고 봐도 질릴 틈을 주지 않는다.

그중 파워폴드는 스위치 하나로 3열 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 있는 기능이다. 중형 SUV 시장에서는 익스플로러를 통해 최초로 소개됐다. 덕분에 실내 적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단 7인승 익스플로러는 가족 모두 타고도 적재 공간이 충분하다. 골프백 다섯 개 정도 들어가는 594L. 2열 좌석까지 다섯 명 승차 시 3열 시트를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면 1240L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7인승 SUV 중 가장 넓다. 2열 시트까지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면 그 공간은 무려 2285L. 2열은 기본 60/40 분할 시트, 3열은 50/50 분할



시트로 구성되어 있어 공간의 연금술을 마음껏 부릴 수 있다. 게다가 노멀과 스토우, 폴드로 구성된 세 가지 버튼만 누르면 3열 시트를 접고, 펴고, 세우는 일이 손쉽게 해결된다. 여기에

풀 플랫이 되므로 캠핑이나 낚시를 가더라도 담요 한 장만 깔면 침대나 평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목할 기능이 세계 최초 기술인 뒷자석 안전벨트 에어백. 익스플로러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앞, 1열에서 3열 좌석까지 측면 에어백이 있다. 뒷자석 안전벨트 에어백은 안전벨트 안쪽에 주머니가 들어 있어 원통형 에어백을 내장한 것으로 2열 시트에 장착되어 있다. 차량이 에어백 분출 신호를 보내면 에어백이 앞좌석 보다 먼저 서서히 부풀어 오른다. 탑승자의 가슴 부분에 거쳐 오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줄이며 머리와 목을 지지해준다.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결합한 최고의 안전 구명 장치인 셈. 안전상의 이유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2열 시트에 많이 앉게 되는데, 돌발 상황 발생 시 일반 안전벨트로 인한 가슴뼈나 어깨 탈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옵션이다. 가족형으로 인기가 높고 안전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인 익스플로러 차량에 처음 선보이게 됐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든든하기까지 한 익스플로러의 놀라운 매력을 이제 당신이 경험해 볼 차례다.

여름 내내 뜨거운 햇살과 장마에 노출된 차량을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는 바로 가을이다. 더위에 지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차량 점검을 꼼꼼히 해야 다가오는 가을철 나들이와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을을 맞아 자동차 관리 요령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Editor 이희진

스마트한 가을철 차량 관리 요령



Fuel Tank_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는 안에 설치한 연료 펌프로부터 압송되어 파이프를 지나 연료 필터, 연료압 조절기, 인젝션 펌프까지 도달한다. 오래된 연료 탱크 안에는 물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어 연료와 함께 연료 계통을 지나면 필터나 파이프가 막히거나 수분이 인젝터 등에서 결빙될 수 있다. 그렇기에 겨울이 오기 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연료 필터는 2만km마다 교환해야 한다. 또 차체 바닥에 위치한 연료 파이프는 구부러지거나 찌그러지면 연료의 흐름을 막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Battery_여름철 과도한 에어컨 사용은 배터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어 자동차 성능 저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배터리를 점검해야 한다. 먼저 전해액의 양이 맞았는지 살핀 후 배터리 본체를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배터리 단자는 사용하지 않는 칫솔이나 쇠 브러시로 이물질들 깨끗이 털어낸 뒤 단단히 조인다. 이와 함께 배터리 단자 상단부에 그리스(윤활유)를 얇게 도포하면 이물질 생성을 억제해 단자 접촉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Tire_마모된 타이어는 눈길이나 빙판길을 주행할 때 미끄러져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낡은 타이어는 미리 교체한다. 타이어의 트레드 부분 홈 깊이가 1.6mm 이하로 마모된 경우 즉시 교체하고, 여름휴가 중 비포장도로를 많이 달렸다면 뽀족한 돌이 박혀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장거리 운행을 하기 전 타이어의 공기압도 체크해두자. 정상적인 타이어도 1년 동안 공기압이 3~5%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공기압보다 10% 부족할 경우 5~10%의 연료가 더 소모된다고 한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스노 체인의 녹을 제거하고 눈이 내리기 전 사용 방법을 숙지해둔다.

Heater&Defroster_히터와 서리 제거 장치는 항상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여름에도 가끔 10~20분 정도 틀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 1~2회 정도 작동하면 냉매 유출을 방지하고 콤프레서 내 오일 순환을 원활히 해 고장 방지와 수명이 연장된다.

Electric System_장마로 인한 습기는 자동차의 각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습기에 취약한 전기 계통은 점화 및 시동 부위의 배선 상태와 침수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물기를 잘 닦고 접속 부위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햇볕이 잘 드는 날 수시로 도어와 트렁크를 열어 환기시킨다. 악취 제거를 겸한 제습제를 비치해두는 것도 잊지 말 것.

Fog Lamp_안개가 심한 날엔 안개등이 큰 역할을 하는데, 시야를 좋게 해줄 뿐 아니라 상대편 차량에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준다. 가을철에는 안개가 자주 끼므로 미리 점검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등의 외관과 전구 상태를 살펴 수리해둔다.



드리프트의 신, 켄 블록을 만나라

Ken Block

Drifting on Ford Fiesta

모터스포츠에 관심 있는 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켄 블록. 만약 그를 모른다면 지금 당장 유튜브에 접속해 켄 블록을 검색해보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화끈한 드리프트 퍼포먼스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궁금하리라.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Editor 강미라

랠리, 드리프트, 짐카나 그리고 켄 블록

켄 블록은 WRC(World Rally Championship,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서 활동 중인 랠리 드라이버다. 미국 각 지역에서 찍은 짐카나 동영상 덕분에 유튜브 스타로도 유명하다. 그의 닉네임은 드리프트의 황제, 드리프트의 신이다. 모터스포츠 팬에게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다.

지난해 유튜브에 공개한 켄 블록의 짐카나 영상은 이미 5000만 건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다. 급격한 커브길은 물론, 장애물과 사람까지 화려한 드리프트로 피해가는 모습이 압도적이다. 거의 하늘을 나는 수준이다. 자동차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그러니 자동차와 모터스포츠 마니아는 오죽할까. 켄 블록 하면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켄 블록은 스케이트보드, 모터크로스, 스노보드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다 1994년, 스케이트보드 프로 선수 콜린 맥케이(Colin Mckay)와 함께



DC슈즈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후 엄청난 수익을 올린 켄 블록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랠리 드라이버로 나섰다. 그가 처음 랠리에 출전한 2005년에는 '루키 오브 더 이어'라는 신인상을 받았다.

켄 블록은 선수 생활을 하며 짐카나 묘기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운전을 배우고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의 차로 점프와 드리프트 연습을 한 전력도 있다. 랠리와 드리프트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1967년생인 그는 올해 47세다. 현역 선수로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드리프트 분야에서 최고로 군림하고 있다. 50~60대가 되어서도 서킷 위에서 랠리와 짐카나를 즐기고 싶다고 말하는 켄 블록. 그에게 랠리와 드리프트는 삶 그 자체이며, 순수한 재미와 즐거움이다.

몬스터가 된 켄 블록의 포드 피에스타

켄 블록은 2010년부터 스바루에서 포드로 이적하며 포드의 소형 해치백인 피에스타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팬들에겐 켄 블록이 타는 드리프트 머신 역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다. 켄 블록은 올해 2013년형 뉴 피에스타를 공개했다.

켄 블록의 이번 포드 피에스타는 튜닝을 통해 2.0L 터보엔진에 650마력까지 출력을 끌어올렸다. 무게는 1250kg으로 낮췄다. 제로백(0~100km/h)은 불과 1.9초밖에 되지 않는 괴물 같은 성능의 머신이다. 드리프트와 스피드 턴을 쉽게 하기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길게 늘렸으며, 사이드미러는 기존 차량보다 상당히 줄였다. 또 드리프트 시 마찰열로 뜨거워지는 차체의 온도를 내리기 위해 대형 팬을 설치했다. 외관은 과격한 에어댐과 오버 펜더로 중무장했다. 에어 덕트와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화려하고 전투적이다. 245mm의 고성능 광폭 타이어를 사륜에 끼웠고, 18인치 경량 단조 휠을 사용했다. 또 드리프트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후륜구동(뒷바퀴 굴림) 차량을 선호하지만 켄 블록의 피에스타는 사륜구동이다. 사륜이 후륜보다 힘이 좋아 다양한 기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켄 블록의 설명.

예술로 승화한 켄 블록의 드리프트 신공!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는 그의 포드 피에스타가 올해는 또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기대해보자.

tip 드리프트가 궁금하다

드리프트는 차의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앞바퀴의 방향과 반대로 달려 나가는 기술. 짐카나는 넓은 공간에 선을 긋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복잡하고 어려운 코스를 만든 뒤 드리프트 기술로 통과하는 경기를 말한다.

코너를 돌 때 액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면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는데 이런 상태를 드리프트라고 하며, 드라이버가 카운터 스티어 등의 테크닉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의 상태다. '파워 슬라이드' 또는 '파워 드리프트'라고도 한다.

코너로 들어서기 위해 핸들을 꺾은 시점에서도 차에는 아직 직진하려는 관성이 남아 있는데, 코너로 꺾어 액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이 관성 때문에 뒷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관성 드리프트'라고 한다. 또 코너로 꺾어서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 뒷바퀴를 슬라이딩시키는 것은 '브레이크 드리프트'라고 한다.



에코부스트 엔진을 해체해 놓은 모습

엔진으로 열어가는 자동차의 미래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다. 포드는 첨단 신기술로 엔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가솔린 터보, 디젤, 하이브리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앞서가는 선두주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Writer 임유신 <<툼기어>매거진 기자>



Liter Power Stoke V-8 Turbocharged Diesel Engine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2013 포드 포커스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답을 내리기 힘든 문제다. 엔진이 없으면 힘을 내지 못하고, 타이어가 없으면 아예 움직일 수 없다. 시트가 없으면 사람이 탈 수 없으니 움직이는 쇠덩이에 불과하고, 조향 장치가 없으면 앞으로만 달릴 수 있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지면 일순위가 엔진이다. 일단 힘을 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숨이 붙어 있으려면 우선 심장이 뛰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엔진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을 만드는 장치다. 연료를 태워 힘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공학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엔진 자체뿐 아니라 하는 역할도 복잡하다. 힘이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비도 높아야 한다. 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야 하고 차의

크기나 성능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잘 만든 엔진은 보배 같은 존재다. 엔진 하나만 잘 만들어도 자동차의 절반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 라인업을 탄실하게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엔진 라인업이 다양하고 확실하게 갖춰지면 차를 개발할 때 레고 블록 맞추듯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된다. **엔진 라인업을 보면 한 브랜드의 동력 계통 성능과 기술력,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포드는 엔진 라인업을 제대로 갖춘 대표적인 브랜드다.**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효율성과 성능,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

효율성의 강자, 가솔린 터보
요즘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다운사이징

(Downsizing)이다. 엔진 배기량을 줄이는 대신 힘과 연비를 높이는 것이 다운사이징의 요체다. 다운사이징은 디젤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배기량 대비 토크가 높고 연비가 좋기 때문에 배기량이 작아도 큰 차에 얹을 수 있다. 자동차 업계가 다운사이징의 주재료로 디젤을 주목할 때 포드는 가솔린엔진에 눈을 돌렸다. 토러스나 익스플로러 같은 대형급 세단이나 SUV에 2.0L 가솔린엔진이 올라가는 게 믿어지는가. 준대형급인 퓨전이나 중형 SUV인 이스케이프에 1.6L 엔진을 얹은 것은 또 어떤가. 상식으로는 받아들이 수 없는 일을 포드가 실현하고 있다. 1.6L 엔진은 약 180마력, 2.0L 엔진은 240마력 이상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터보와 직분사, 트윈 독립 가변 캠샤프트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에코부스트'



1



2



3

1 1.5L 에코부스트 엔진 2 포드의 하이브리드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3 포드의 스마트하고 파워풀한 엔진의 마력

덕분이다. 에코부스트는 가솔린 다운사이징 엔진의 대표 브랜드로 통한다. 에코부스트는 출력 증가뿐 아니라 효율성 20% 이상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15% 이상 감소 효과를 낸다. 에코부스트가 유독 돋보이는 이유는 디젤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힘든 휘발유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대배기량 엔진을 주로 쓰는 미국 시장에서 배기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은 도전이자 일대 도박이었다. 포드는 에코부스트를 통한 다운사이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에코부스트는 1.0~3.5L에 이르는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이루고 있다. 배기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차종에 에코부스트 엔진을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L 에코부스트를 중형인 몬데오에 얹는 등 에코부스트 엔진 한 종류가 커버하는 모델 범위도 차종을 가리지 않고 점차 넓어지고 있다. 특히 **1.0L 에코부스트는 엔진 기술 전문 매체 <엔진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이 선정한 '2013 올해의 엔진'에 2년 연속 뽑히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V6 에코부스트는 힘과 연비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성능 모델이나 대형 트럭에 쓰인다. 토러스의 고성능 버전인 SHO나 F-150 트럭 등에 3.5L급

에코부스트가 올라간다. 동급의 자연 흡기 엔진에 비해 힘은 강력하면서 효율성은 더욱 높다. 특히 픽업트럭 분야에서 에코부스트 엔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에코부스트 확장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포드는 2013년까지 북미 판매 모델의 90%를 에코부스트로 채울 계획이다.

디젤 기술의 우수성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내연기관의 종말론으로 이어졌다. 대체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찾기 위한 연구 결과 전기차나 수소연료 전지차가 미래 친환경차로 떠올랐다. 하지만 세대교체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 차의 개발 속도와 기반 시설 구축이 의외로 오래 걸리는 이유도 있지만, 내연기관이 계속 발전하면서 단점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음과 진동, 오염 물질 등 부정적 인식이 박힌 디젤의 눈부신 변신이 눈에 띈다. 연비는 나날이 높아지고, 가솔린과 비등한 정숙성과 더욱 우수한 친환경성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흔히 미국 브랜드가 내놓는 차는 디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디젤 모델이 거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에 진출한 미국 브랜드들은 디젤 천국인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디젤엔진을 개발하고 디젤 모델을 내놓는다.

포드는 1930년대 초 유럽에 진출했다. 포드는 유럽 브랜드로 여겨질 정도로 유럽 시장에 동화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현재 '원 포드' 정책에 따라 포드 유럽과 미국 포드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지만, 각 대륙에서 갈고닦은 전통과 실력은 여전히 포드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남아 있다. **포드 유럽의 디젤 기술은 디젤의 본산 유럽에서도 최고로 꼽힐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에코네틱은 포드의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디자인과 역동성은 손해 보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 물질을 줄인다. 에코네틱의 대표 모델은 피에스타다. 1.6L 94마력 TDCi 엔진을 얹은 피에스타 에코네틱은 연비가 리터당 30km가 넘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87g에 불과하다. 피에스타 에코네틱은 스톱 앤드 시스템, 엔진 마찰 저감 및 연소 효율 향상, 에너지 재생 충전, 에코 모드, 공조장치 효율 향상, 주행 마찰 저감 등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총동원했다. 에코네틱의 요체는 듀라토크 디젤엔진이다. 2-스테이지 연료 분사 방식을 쓰는 듀라토크 엔진은 필요한 양의 연료를 정확하게 분사하기에 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도 적다. 대부분의 듀라토크 엔진은 오버부스트 기능을 갖추어 일시적으로 10% 정도 토크를 추가할 수 있다. 2.0L 듀라토크는 가장

널리 쓰이는 대표 엔진으로 140마력, 163마력으로 나온다. **2.0L 듀라토크는 국내에도 포커스 디젤을 통해 선보였다. 163마력 2.0L 엔진을 얹은 포커스 디젤은 리터당 복합 연비 17km/L, 고속도로 20.1km/L로 동급 최상의 연비를 자랑한다.** 올 1~5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는 포커스가 차지했다.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모델이 포커스고 그 대부분은 디젤 모델이 차지하고 있다. 포드 디젤의 가치가 판매량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의 선봉에 서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새로운 동력원이다. 전통적 내연기관과 미래차라 할 수 있는 전기차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과도기적 역할을 넘어 시대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주류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는 않다. 마라톤에서 선두와 후발 그룹이 갈리듯 기술력과 흐름을 읽어내는 선구안을 가진 메이커와 그렇지 못한 메이커 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독일 브랜드들은 디젤에 집중하다 뒤늦게 하이브리드 대열에 동참해 후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계에서는 토요타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계에서는 단연 포드가 앞서고 있다. 포드는 예전부터 이스케이프와 퓨전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운영해왔다. 이스케이프는 2005년 SUV 최초로 하이브리드를 얹고 세상에 태어났다. 직렬 4기통 2.3L 133마력과 전기모터를 결합해 V6급의 강력한 힘을 냈다. 도심 연비가 리터당 18km에 이를 정도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게다가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로 실용성까지 갖추어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스케이프에 이어 나온 퓨전 하이브리드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세단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신형 퓨전과 C-맥스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두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포드는 올해 2분기에 2만4217대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7%,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15% 늘어난 수치다. 분기별로 따지면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하이브리드 시장점유율은 16%까지 올랐다. 특히 C-맥스는 동급의 강력한 라이벌인 토요타 프리우스 V보다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연비도 리터당 20km로 프리우스 V보다 약 3km 앞선다. 포드의 하이브리드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기모터가 보조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전기모터만으로도 달릴 수 있어 효율성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비해 높다. 포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신형 퓨전 하이브리드에는 구형 시스템에 비해 크기는 30% 작아지고, 무게는 23%나 가벼워졌다. 그런데 셀당 출력은 20% 높아졌다. 가솔린 다운사이징과 비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다운사이징에도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 2.5L 엔진을 얹은 구형과 달리 신형 퓨전 하이브리드는 2.0L 141마력 엔진을 얹는다. 전기모터의 힘을 더한 시스템 출력은 188마력. 연비는 도심/고속도로/복합 모두 리터당 20km로 동급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퓨전 하이브리드는 2013 그린 카 오브 더 이어에 뽑히는 등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또 J.D.파워가 조사한 연비 만족도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다. 포드는 하이브리드에 그치지 않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에너지(Energy)'란 수식어가 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동급 차 중 가장 높은 연비를 기록하며 포드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처럼 포드는 미래를 앞당기는 선두주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2.0L 듀라토크는 국내에도 포커스 디젤을 통해 선보였다. 163마력 2.0L 엔진을 얹은 포커스 디젤은 리터당 복합 연비 17km/L, 고속도로 20.1km/L로 동급 최상의 연비를 자랑한다.





1962_FORD_MUSTANG_CONCEPT CAR

Heritage of Mustang

미국인에게 머스탱이라는 이름은 전설이나 다름없다.

머스탱은 멋진 스타일을 뽐내며 가볍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거리에서도, 1분 1초를 다투는 레이싱이 펼쳐지는 서킷에서도 50여 년간 꾸준히 시선을 사로잡았다.

‘포니 카’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미국 스포츠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머스탱의 역사를 돌아보자.

Writer 류청희(자동차 평론가)



2014_FORD_MUSTANG_V6

첫 양산 머스탱이 미시건 주 디어본의 공장에서 만들어져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64년 3월 9일의 일이다.
같은 해 4월 17일 뉴욕세계박람회에서 처음 공개한 머스탱은
등장하자마자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개발 과정

1960년대 초, 포드에 재직하고 있던 리 아이아코카

(Lee Iacocca)는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해 멋진

스타일과 운전 재미를 겸비한 소형차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생각을

지지한 몇몇 임원의 도움으로 소형차 팔컨을

바탕으로 특별한 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제한된

예산과 시간에 쫓겨 팔컨의 설계와 부품을 대폭

활용해야 했지만, 아이아코카는 스타일만큼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의견은 디자인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완성된 머스탱은 팔컨과는

전혀 다른 스포티한 모습을 갖추었다. 머스탱이라는

이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름을 날린 P-51

머스탱 전투기에서 비롯했지만, 원래 미국산

야생마의 이름이기에 달리는 야생마를 형상화한

로고를 머스탱에 붙였다.

1세대(1964~1973)

첫 양산 머스탱이 미시건 주 디어본의 공장에서

만들어져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64년 3월

9일의 일이다. 같은 해 4월 17일 뉴욕세계박람회에서

처음 공개한 머스탱은 등장하자마자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포드는 원래 연간 1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했지만 그 목표는 불과 석 달 만에 이루어졌다. 나아가

출시 이후 1년간 68만 대 이상 팔렸고, 100만 대를

넘어서기까지 1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머스탱은 처음에는 2도어 쿠페와 컨버터블 두 종류만

나왔지만, 곧 좀 더 날렵한 디자인의 패스트백 모델을

추가했다. 머스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포드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내

꾸밈새와 장비를 폭넓게 마련했다. 현대의 패션

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사항의 조합은

이미 1960년대에 머스탱이 시도한 것들이다.

머스탱은 원래 성능보다는 스타일을 중시한 차였기에

처음에는 강력하다고 할 만한 엔진은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스포티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고성능

차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자, 포드는 레이서 캐럴

셸비(Carroll Shelby)에게 의뢰해 고성능 모델을

제작했다. V8 엔진을 튜닝해 성능을 높인 셸비 GT

350과 GT500KR 모델은 정통 스포츠카로 손색이

없다. 이후 셸비 머스탱은 고성능 머스탱의 상징이

되었다.

머스탱의 인기에 충격을 받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앞다투어 머스탱과 비슷한 디자인과 성능의 자동차를

속속 내놓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머스탱은

소비자를 끌어당길 매력적인 요소를 더 많이 담아야

했다. 1967년형 모델에서는 차체를 살짝 키우면서

더 날렵한 스타일로 분위기를 바꿨다. 스타일의

변화와 더불어 편의성이 보장되었고, 경쟁 차를

의식해 연식이 바뀔 때마다 엔진 출력은 높이고 더 큰

배기량의 엔진을 추가했다. 그리고 1969년형 모델로

첫선을 보인 보스(Boss) 머스탱은 모터스포츠에서

활약하며 머스탱 신화를 만들어나갔다.

1971년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크고

박력 있는 차체와 강력한 엔진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차체가 크고 무거워지면서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가볍고 민첩한 주행 감각은 빛을 잃었다. 나아가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엔진 출력이 떨어졌고,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석유 파동이 닥치면서 판매량이

곤두박질쳤다. 포드는 머스탱의 개발 방향을

수정해야 했다.

2세대(1974~1978)

데뷔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킨 덕에 머스탱은 미국인에게 고성능

스포츠카로 각인되었다. 포드는 이런 인식에

부응하기 위해 2세대 머스탱에 더욱 강력한 이미지를

불어넣으려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머스탱의 주 고객이던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성을

중시해 작은 차로 눈길을 돌렸고, 한껏 몸집이 커진

머스탱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포드는

머스탱을 1세대보다 훨씬 작게 만들었다. 팔컨보다

더 작은 핀토의 설계와 부품을 이용해 만든 2세대

머스탱은 1세대 머스탱 중 가장 컸던 1973년형

모델보다는 30cm 이상, 첫 머스탱보다 17cm 가까이

짧아졌다.

새로운 설계의 작아진 차체에는 그에 어울리는

작은 엔진을 장착했다. 배기량뿐 아니라 크기도

컸던 V8 엔진은 V6 엔진에 자리를 내주었고,

기본 엔진은 직렬 4기통 2.3L로 대폭 작아졌다.

연비와 친환경성을 고려한 다운사이징이었다. 더 이상

머스탱은 고성능 스포츠카가 아니었지만, 고유가의

충격을 맞닥뜨린 소비자는 오히려 이런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경제적 스포츠카'로 거듭난 새 머스탱은

전성기만큼은 아니어도 적잖은 인기를 누렸다.

물론 여전히 고성능 머스탱을 기대하는 소비자가

있었기에 1975년형 모델에는 다시 V8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배기가스

규제의 영향으로 엔진 출력은 보잘것없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석유 파동에 이은 경기 침체 때문에

판매가 줄었지만, 머스탱은 꾸준한 판매를 이어갔다.

그리고 1976년부터는 세련된 스타일로 꾸민 코브라

시리즈를 추가하면서 머스탱은 조금씩 과거의 맛을

되찾았다.

3세대(1979~1993)

석유 파동의 여파가 사그라질 무렵 포드는 2세대

머스탱에서 부족했던 스포츠카다운 면모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전혀 새로운 머스탱을 내놓았다. 1979년형

모델로 첫선을 보인 3세대 머스탱은 이후 15년이란

세월 동안 생산하며 스포츠카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장수 모델이 되었다. 물론 포드가 처음부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3세대 머스탱을 생산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포드 안팎의 여러 사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당시 기준으로 머스탱은 미국 스포츠카의 색깔을

유지한 덕분에 꾸준히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여러 주에서 경찰차로 쓰이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22 | FORD TO FORD

1966



1 1966_FORD_MUSTANG_GT350H_FASTBACK
2 1969_FORD_MUSTANG_MACH1_FASTBACK
3 1971_FORD_MUSTANG_MACH1_FASTBACK
4 1976_FORD_MUSTANGII_COBRAII

1969



1971



1976



1980



5 1980_FORD_MUSTANG_LX_COUPE
6 1981_FORD_MUSTANG_GHIA
7 1987_FORD_MUSTANG

1981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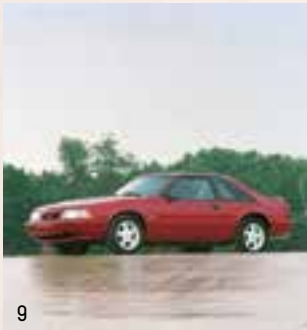


1989



8 1989_FORD_MUSTANG_CONVERTIBLE
9 1992_FORD_MUSTANG
10 1994_FORD_MUSTANG_CONVERTIBLE

1992



1994



1997



11 1997_FORD_MUSTANG_CONVERTIBLE
12 2005_FORD_MUSTANG
13 2013_FORD_MUSTANG

2005



2013



인상을 남겼다.

3세대 머스탱은 2세대보다는 크고 1세대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에 쿠페와 패스트백의 두 가지 모델이 먼저 선을 보였다. 스타일은 1세대는 물론 2세대와도 뚜렷하게 달라 현대적 감각이 돋보였다. 두 개의 사각형 헤드램프가 좌우에 놓인 각진 앞모습은 날렵한 느낌을 주었다. 커진 차체와 더불어 거주성을 중시한 설계 덕분에 실내 공간은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커져 편안해졌다.

1983년에는 한동안 라인업에서 사라졌던 컨버터블이 부활해 오픈 드라이브를 즐기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되었다.

1987년형 모델에서는 포드의 패밀리 디자인 변화에 따라 앞모습이 부드러워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사라진 '에어로' 스타일로 바뀌었다. 엔진도

카뷰레터를 이용한 기계식 연료분사 방식 대신 전자식 연료분사 방식을 채택해 성능과 효율이 개선되었다. 가장 높은 성능을 낸 V8 5.0L 엔진의 GT 모델은 일반 도로에서는 물론 서킷에서도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1993년에는 한정 생산 고성능 모델인 SVT 머스탱 코브라와 코브라 R이 등장해 3세대 머스탱의 마지막 해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4세대(1994~2004)

포드는 머스탱 데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으로 머스탱을 단장했다. 공기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스타일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둥글어졌지만, 전통적 머스탱의 개성과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4세대 모델은 스포츠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대중적 인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모델은 2도어 쿠페와 컨버터블로 정리되었다. 엔진은 V6 3.8L가 기본이고, 고성능 모델에 쓰인 V8 5.0L는 1995년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V8 5.0L 엔진은 1세대 머스탱에 처음 쓰인 것을 꾸준히 개량한 것이었다. 1996년에 V8 5.0L 엔진을 대신해 등장한 V8 4.6L 엔진은 이후 2010년까지 고성능 머스탱의 심장으로 활약했다. 1999년에는 데뷔 3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뉴 에지(New Edge)' 테마에 따라 날카로운 선을 강조해 한층 오리지널 머스탱에 가까운 스포티한 분위기를 띠었다. 아울러 엔진 전반의 출력도 높아져 스포츠카 마니아를 자극했다. 특히 고성능 모델인 머스탱 코브라가 등장해 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더불어 튜닝된 V8 5.0L 엔진을 엮은 머스탱 코브라는 유명한 인디애나폴리스 500 레이스의 선도차로도 활약했다. 4세대에서는 여러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 나와 마니아의 향수와 구매욕을 자극했다. 2001년에 나온 불릿 머스탱은 1968년에 개봉한 영화 <불릿>에서 스티브 매크이 몰아 유명해진 머스탱의 분위기를 재현했고, 2003년에 나온 마하 1(Mach 1)은 1969년부터 1970년까지 가장 강력한 머스탱으로 인기를 끈 모델의 이름을 되살렸다. 2004년에는 데뷔 40주년 기념 모델도 나왔다.

5세대(2005~현재)

3세대에 이어 10년 남짓 장수한 4세대 모델은

다양한 스포츠카 애호가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카리스마를 되살리지는 못했다. **이에 포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전 세대의 것을 발전시킨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설계를 바탕으로 전성기 머스탱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복고적 디자인으로 새로운 머스탱을 만들어낸 것이다.** 대형 원형 헤드램프와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 긴 보닛과 매끄러운 지붕선, 최대한 간격을 벌려 차체 양쪽 끝에 배치한 테일램프 등 1960년대 중반 머스탱을 연상시키는 모습은 오랜 머스탱 팬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환영을 받았다. 아울러 이전 세대보다 실내 공간이 넓어졌고, 과거 어느 때보다 세련되고 정교한 꾸밈새를 갖추었으며, 최신 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장비를 추가함으로써 역대 가장

매력적인 머스탱으로 거듭났다. 2010년에는 다시 한층 날렵하고 세련된 모습과 새로운 기술을 담아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기본 구조와 디자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바뀐 실내의 디자인으로 고전미와 현대미가 조화를 이룬 멋진 스포츠카가 되었다. 나아가 2011년형 모델부터는 현대적 기술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신형 V6 3.7L 엔진과 V8 5.0L 엔진이 추가되었다. 성능은 물론 연비까지 뛰어난 새 엔진은 더욱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다. 아울러 역대 머스탱 중 고성능으로 이름 높았던 보스 302와 셀비 GT500 모델을 부활시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셀비 GT500의 V8 5.4L 슈퍼차저 엔진은 최고 출력 671마력(=662hp)으로 역대 머스탱에 쓰인 엔진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중형 세단 시장.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포드는 퓨전에 대대적인 혁신을 담았다. 스타일만큼이나 뛰어난 성능, 친숙한 편안함과 첨단 기술의 편리함을 모두 갖춘 퓨전은 중형 세단에 대한 선입견을 날리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다.

Writer 류청희(자동차 평론가) Photographer 민성필

Think and Look Forward Fusion

미국 승용차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차급은 미드사이즈(Mid-size),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형 세단이다. 미국에서는 중형 세단이 미국과 일본, 나아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둔 브랜드까지 뛰어들어 팽팽하게 세를 겨루고 있다. 이 차급에서는 꽤 오랫동안 일본 브랜드 차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웬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포드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새 퓨전을 내놓으며 대대적인 혁신을 감행했다.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다. 모델 변경 이후 퓨전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 판매 상위권을 맴돌며 일본 브랜드 중형 세단에 점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중형 세단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경쟁에 퓨전에 뛰어들었다. 중형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퓨전이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닛산 알티마 보다 판매 순위가 낮지만 161,140대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무섭게 추격하고 있다. **퓨전은 그동안 포드를 비롯해 미국 브랜드들이 고집해온 자동차와 달리 스타일부터 새롭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차체의 양감은 날렵함을 강조한 디테일과 어우러져 힘과 속도감이 함께 느껴진다.** 과거 미국 중형 세단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사실 퓨전의 디자인은 201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에보스(Evos) 콘셉트카의 박력 있는 스타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양산차에 어울리도록 손질했을 뿐 최신 콘셉트카의 스타일이 거의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디자인 감각이 신선하다는 뜻이다. 유연한 곡선과 곡면을 바탕으로 강렬한 캐릭터 라인을 곳곳에 넣어 박력 있는 외관은 이른바 키네틱 2.0(Kinetic 2.0)이라는 포드의 최신 디자인 개념을 가장 뚜렷이 보여준다. 특히 차의 인상을 좌우하는 앞모습은 세단이라기보다 스포츠카 분위기에 가깝다. 곡선이 절묘한 테일램프와 뒤 범퍼 양쪽 끝으로 최대한 간격을 벌려놓은 배기구도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한다. 화려한 겉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묵직한 도어를 열면 조금은 다른 분위기의 실내가 눈에 들어온다.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담 없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물씬하다. 사실 자동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내 분위기가 중요하다.





1



2



3



4

1 에코부스트 엔진의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주행 2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실내 공간 3 퓨전의 스마트한 자동주차시스템 4 간단명료하게 디자인된 계기판

막상 오랜 시간을 가까이하는 부분은 실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퓨전은 좋은 실내가 갖춰야 할 다양한 요소를 정해진 공간에 담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대시보드와 도어 내장재, 시트에 이르는 큼직한 요소는 전반적으로 적당한 긴장감이 서린 포근한 곡면으로 펼쳐져 있다. 그리고 과장되지 않은 금속 느낌의 장식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운전석 주변을 중심으로 곳곳에 마련한 수납공간도 편리하고, 시트는 여유 있는 공간과 함께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특히 스포티한 겉모습에 비해 공간이 넉넉한 뒷좌석과 커다란 트렁크는 의외의 만족감을 안긴다. 한편으로는 누가 앉더라도 금세 친숙해질 수 있는 모습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포드가 자랑하는 최신 기술이 구석구석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거의 모든 기능을 터치 감지 방식으로 조작하게 되어 있는 여러 장치다. 대시보드 가운데에 놓인 대형 컬러 스크린은 물론, 그 아래에 있는 오디오 및 공기 조절 장치도 손끝을 대기만 하면 조작이 가능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실내등과 선루프도 터치로 조절할 수 있다. 계기판도 중앙의 속도계 양쪽으로 화려한 다기능 컬러 디스플레이가 놓여 있어 차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를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 선택하고 조절하며 확인할 수 있다. 음성 인식 기능의 싱크가 포함된 마이포드 터치도 대중적인 자동차 브랜드를 위해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 가장 발전한 형태의 것이다.

간단히 말해, 퓨전의 실내는 현재 감각으로 미래 기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련미만큼이나 타는 이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달리는 느낌이다. **다운사이징이라는 최신 트렌드를 충실하게 반영한 에코부스트 엔진은 직접 연료분사 기술과 터보차저 기술을 결합해 비교적 작은 배기량으로도 높은 출력을 낸다.** SE 모델의 기본 엔진인 1.6L 에코부스트 엔진은 2.0L급 엔진과 견줄 수 있는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 25.4kg · m의 힘을 내고, 상위 모델에 올라가는 2.0L 에코부스트 엔진은 3.0L급 엔진을 넘보는 234마력의 최고 출력과 37.3kg · m의 최대 토크를 자랑한다. **게다가 배기량이 작은 덕분에 각종 세금 부담도 가볍고, 비슷한 성능의 일반 엔진보다 연비는 더 뛰어나다.** 에코부스트 엔진에서 비롯되는 퓨전의 달리기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부드럽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때의 퓨전은 양전한 양 같은 느낌이다. 회전수가 높지 않아도 충분한 힘으로 차분하게 속도를 붙여나간다. 덕분에 속도를 낼 수 없는 도심에서도 오른발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다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으면 일순 배기음의 톤이 높아지며 힘차게 앞으로 뻗어나간다. 뛰어난 방음 처리 덕분에 조용한 실내도 가속이 빨라지면 제법 박력 있는 배기음이 적당히 걸려져 기분 좋게 귀전을 울린다.

어느 속도 영역에서도 필요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데에는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도 한몫한다. 변속은 언제나 부드럽고 깔끔하며, 엔진의 힘이 알차게 바뀌어 전달되는 느낌이 뚜렷하다. 스티어링 휠 뒤에 마련된 변속 패들은 에코부스트 엔진의 강력한 힘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제격이다. 자동변속기로는 제법 빠른 변속 속도 덕분에 속도를 높일수록 평범한 중형 세단에서 느끼기 어려운 후련함을 맛볼 수 있다. 여기에 절제된 부드러움으로 안정된 승차감을 일관되게 표현하는 하체는 차에 탄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 넉넉한 엔진의 힘을 충분히 감당하며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먼 거리를 달리는 동안에도 몸이 쉬 피로해지지 않는다. 퓨전은 차를 모는 사람에게는 차를 다루는 맛을, 함께 탄 사람에게는 쾌적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너그러움을 안겨주는 능력이 있다. 조금 과장해 표현하면, 퓨전은 포드의 혁신과 기술을 가장 인상적으로 한데 모은 차다. 그동안 경험했던 포드 승용차의 기억과는 차원이 다른, 여러 면에서 새로우면서 만족스러운 요소와 감각을 발견할 수 있다. 미사여구가 부담스럽거나 미덥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솔직한 심정으로 퓨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스타일만큼이나 멋진 경험을 안겨주는, 중형 세단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매력적인 차라고.

자동차가 꿈꿀 수 있는 모든 상상.

2013 올-뉴 퓨전 에코부스트의 첨단 테크놀로지는 이것조차 뛰어넘는다.

발새 이야기해도 모자랄 퓨전의 진면목. 이 중 다섯 가지를 꼽았다.

Editor 강미라

Move Your Perfect Fusion

1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버튼 하나로 차량의 앞과 뒤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가 작동, 주차 가능 공간을 스스로 찾아내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가 2013년 올-뉴 퓨전에 탑재됐다. 변속기와 브레이크 페달 조작으로 주차가 가능하고 음성 및 사이드 미러의 경고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2 베스트 디자인! 화려한 수상 경력

〈2012 북미 오토쇼 Eye on design〉, 〈Best in show〉, 〈2013 캘리블루북 베스트 리디자인〉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만큼 디자인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스포츠 쿠페 스타일의 측면 디자인을 비롯해 낮은 루프라인, 레이저컷 헤드램프가 매력적인 전면부 디자인 등으로 정지한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과 날렵함이 더해졌다. 무게 절약형 흡음 자재와 차내 하부 음향 보호 장치로 정숙성까지 잡았다.

3 미국 안전도 검사 최우수 등급 획득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호협회(IHS)의 차량 안전도 검사에서 최고등급인 'Top Safety Pick Plus(+)'를 획득했다. 8개의 에어백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장착되어있다.

4 직분사 터보, 에코부스트 엔진

터보 랙 없이 낮은 회전 영역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최적의 연소 상태를 유지해 최상의 출력을 얻어낸다. 셀렉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와 공기역학적 특성을 높이도록 조절되는 액티브 그릴 셔터와 결합해 극대화된 연비 효율을 경험할 수 있다. 1.6L와 2.0L 직렬 4기통 에코부스트 엔진이 장착되며, 각 177마력과 234마력의 힘으로 드라이빙의 참맛을 제공한다.

5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량이 차선을 벗어날 경우 운전대를 진동시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작동한다. 차간 거리를 인식해 속도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제동 보조 기능이 포함된 충돌 경고 장치는 전방의 차와 미리 설정해놓은 거리를 유지한다.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앞 유리에 경고등을 점멸하고 경고음을 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포커스. 독일 디젤 엔진의 기술력으로 힘과 연비 모두를 잡은 포커스 디젤의 매력 속으로. 첨단 기술의 파워시프트 변속기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운전의 재미와 탁월한 경제성은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포커스 디젤의 진정한 가치다.

Writer 류청희(자동차 평론가) Photographer 민성필

1 2013 포드 포커스의 위풍당당한 모습 2 대담하게 표현한 선과 굴곡이 독특한 개성이 느껴지는 실내 공간 3 소니 오디오 시스템의 깔끔한 음질을 즐길 수 있다. 4 2013 포드 포커스 4도어 모델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차가 있고, 누구에게나 좋은 차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역과 기후, 문화가 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랑받는 차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포드 포커스는 지난해 102만 대 이상 판매되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승용차임이 입증되었다. 치열한 자동차 시장의 경쟁에서 가장 많은 이가 선택하는 차를 만든다는 어려운 일을 포드가 해냈고, 그 주역이 포커스라는 사실은 포드가 포커스를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기는 그만큼 포커스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을 이유가 충분한 좋은 차라는 것을 증명한다.

포커스는 4도어 세단형과 5도어 해치백, 두 가지 디자인으로 생산된다. 이번에 시승한 포커스는 5도어 해치백의 최상위 모델인 티타늄(Titanium). 공간 활용도에 초점을 맞춰 만드는 해치백은 포커스 라인업의 핵심이다. 해치백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스타일이 무뎠던해지기 쉽다. 하지만 포커스는 충분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면서 스타일의 역동성을 잃지 않았다. 겉모습은 유연한 곡선과 곡면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날렵하고, 실내 역시 대담하게 표현한 선과 굴곡이 독특한 개성을 자아낸다. 피아노 블랙 컬러의 하이글로시 패넬로 장식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언뜻 봐도 색다른 느낌을 준다. 여러 편의 기능을 스티어링 휠의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싱크(SYNC)의 영어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 주요 기능을 목소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은 동급 해치백 중에서도 넉넉한 축에 속한다. 특히 뒷좌석은 높이고 등받이 각도가 적당해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시트 양쪽 가장자리 부근에 있는 수납공간은 작지만 꽤 쓸모 있다. 크게 열리는 해치 안에는 깔끔한 적재 공간이 있다. 바닥을 들면 스페어타이어 주변을 칸막이로 구분해 또 다른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뒷좌석 쿠션을 앞으로 젖히고 어깨 부분의 레버를 누르면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등받이는 크거나 많은 짐을 실을 때 편리하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캠핑 장비를 싣기도 좋다. 포커스의 진가는 운전석에 앉아 거리를 달리는 내내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그저 그런 승용차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운전하는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차가 바로 포커스다. 시트의 굴곡과 쿠션, 적당한 지름과 굵기의 스티어링 휠은 편안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준다. 차분한 승차감은 차가 많은 도심에서도, 탁 트인 고속도로에서도 차의 크기를 뛰어넘는 편안함을 안겨준다. 탄탄한 뼈대의 뒷받침 속에 유럽 감각으로 세련되게 조율한 서스펜션이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잘 전달하면서 거친 느낌은 깔끔하게 걸러주는 덕분이다.

사실 포커스의 승차감에서 느낄 수 있는 유럽 감각은 단순히 유럽 차의 느낌만 덧칠한 것이 아니다. 하나의 차로 세계 모든 곳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원 포드 정책에 따라 소형차 개발 노하우가 풍부한 유럽 포드의 머리를 빌려 만든 것이 포커스다. 특히 디젤엔진을 얹고 국내에 들어온 **2013년형 포커스는 독일 자를루이(Saarlouis)에 있는 유럽 포드 공장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유럽에서 숙성한 세련된 서스펜션은 포커스의 능력을 한층 높이는 숨은 보석과 어우러져 승차감 이상의 매력을 이끌어낸다. 그 보석은 바로 모든 포커스에 기본 사항으로 포함되는 토크 벡터링 컨트롤이다. 이 기능은 커브를 안전하게 돌아나갈 수 있도록 커브 안쪽 앞바퀴에 제동력을 가한다. 토크 벡터링 컨트롤의 작동은 아주 매끄러워 전자 장치가 그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운전자는 거의 느낄 수 없다. 덕분에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만큼 자연스럽게 방향을 트는 민첩한 차체 움직임에서 운전의 감각적 즐거움까지 맛볼 수 있다.

물론 **포커스를 운전하는 즐거움을 더하는 일등공신은 2.0L 듀라토크 TDCi 엔진과 파워시프트 6단 변속기다.** Trend 모델의 140마력, Sport와 Titanium 모델의 163마력이라는 수치의 최고 출력도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고, 34.7kg · m(Trend 모델은 32.7kg · m)의 최대 토크는 숫자만으로도 디젤엔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강력함을 짐작케 한다. 게다가 이처럼 엔진의 가장 강력한 힘을 2000rpm부터 3250rpm까지 비교적 넓은 엔진 회전 영역에서 온전히 활용할 수 있고, 정지 상태에서 막 출발할 때처럼 엔진 회전수가 그보다 낮을 때에도

답답함을 거의 느낄 수 없다. 포커스가 봄비는 도심과 한적한 국도, 쪽 뺨은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것은 충분한 토크 덕분이다. 그리고 파워시프트 6단 변속기는 이처럼 충분한 토크를 매끄럽게 바꾸로 전달한다. 파워시프트는 수동변속기의 정교함과 자동변속기의 편리함을 고루 갖춘 듀얼 클러치 방식 변속기(DCT)다. 수동변속기 처처럼 클러치 페달을 조작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자동변속기보다 변속 속도가 빠르고 정교해 성능과 연비 모두 뛰어나다. 평상시에는 기어 레버를 D 위치에 놓으면 액셀러레이터 조작에 맞춰 가장 알맞은 엔진 회전수에서 자동으로 변속이 이루어지고, 레버를 한 단 아래로 내려 S 위치로 놓으면 변속 시기가 늦춰져 한층 박력 있게 속도를 붙인다. 또 기어 레버 뭉치를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있는 변속 스위치를 이용하면 기어를 한 단씩 위 또는 아래로 변속할 수 있어 강렬한 느낌의 걸모습만큼이나 적극적인 달리기 실력을 경험하기에 제격이다.

풍부한 디젤엔진의 힘과 정교한 파워시프트 변속기의 시너지 효과는 뛰어난 연비라는 또 하나의 혜택을 선사한다. 포커스 디젤의 공인연비는 17.0km/L. 동급 모델 중에서도 탁월한 수치고, 트림 컴퓨터에 표시되는 실제 연비도 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공인연비에 가까워진다.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지 않아도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잘 조율된 변속기 기어비 덕분에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하면 엔진 회전수는 1800rpm 언저리에 머문다. 웬만한 속도에서도 낮게 유지되는 회전수는 엔진 소음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시승 차에 장착한 소니 오디오 시스템의 깔끔한 음악 소리가 더욱 두드러지는 이유다.

세련된 스타일의 세단도 매력적이지만 넉넉한 실내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해치백은 포커스의 장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선택이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포커스 해치백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는 이가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길 위에서 마주친 낭만의 순간 이스케이프와 떠난

봄 춘춘, 내 천천. 춘천은 봄 같은 청춘이 반짝이는 도시다. 유난히 산과 강이 많아 봄기운을 빨리 느낄 수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봄은 이름이지만, 많은 이들이 청춘과 낭만을 상징하는 곳으로 춘천을 떠올린다. 산자수명한 풍광과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미식 공간까지. 춘천 특유의 감성이 어우러진 여행의 순간을 포드 이스케이프가 함께했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민성필

춘천

여행의 시작, 숲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

새벽부터 부산을 떠나 이스케이프의 시동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첫 목적지, '제이드가든'을 내비게이션에 설정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덕분에 이번 여행지인 춘천과 서울이 한결 가까워졌지만 여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상쾌한 아침의 피톤치드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스케이프를 타고 경쾌하게 달리는 한가한 새벽의 고속도로는 기분 좋은 덤이었다. 드라이빙에 한참 빠져들다 보니 어느덧 강촌 IC를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2011년 문을 열어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을 만큼 춘천의 명소로 자리 잡은 제이드가든. 여행

의 낭만을 더하는 듯한 유럽풍 외관이 이스케이프를 반겼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산책을 하기 위해 나섰다. '숲 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을 테마로 꾸몄다는 제이드가든은 이에 걸맞게 조성한 식물 3000여 종 가운데 2000여 종이 유럽 수종이다. 이러한 수목원은 국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 스타일로 꾸민 붉은 벽돌의 건물이 고풍스러운데, 얼마 전 종영한 TV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송혜교의 집으로 나왔다.

제이드가든은 24개의 테마 정원으로 나뉜다. 정형화된 정원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식이고 자연적인 것은 영국식이다. 입구부터 수목원 가장 위쪽의 스카이가

든에 이르는 산책로는 세 개다. 단풍나무 사이에서 산책을 즐기는 단풍나무길,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숲속바람길 등 취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어느 곳을 고르든 산등성이 사이로 산책로가 뻗어 있어 호젓하다. 스카이가든에 이르자 하늘과 맞닿은 산세와 멀리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마음을 새롭게 했다. 춘천 여행은 그렇게 순조롭고 평화롭게 시작되었다.

***제이드가든**

위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산 111

문의 033-260-8300





1 제이드가든 방문객 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레스토랑 인 더 가든 내부 전경. **2**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인 더 가든의 허브꽃 비빔밥. **3** 김유정역 광장의 북스테이션에서 소설 《봄봄》에 등장하는 점순이를 만날 수 있다. **4** 김유정역 레일바이크는 워낙 인기가 많아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5** 춘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숨어 있는 카페, 차마실산. **6** 견과류 등을 풍성하게 넣어 지은 차마실산의 연잎밥.



Gourmet Guide 인 더 가든

숲길을 따라 마음껏 삼림욕을 했다면 제이드가든 안에 위치한 레스토랑, 인 더 가든에 들르는 것을 추천한다. 유기농 재료로 만든 깔끔한 건강식을 내놓는다.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식자재를 공수하고, 인공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되 전통 조리법과 전통 장으로 맛을 낸다. 추천 메뉴는 훈제오리 유기농 샐러드. 간장을 이용한 드레싱에 상싱한 채소가 담백한 오리고기와 잘 어울린다. 굴봉산에서 직접 캔 산나물과 돌나물을 담아낸 산나물 숙채 비빔밥도 별미다. 블루베리 주스, 오미자 꿀차, 보리식혜 슬러시 같은 카페 메뉴도 선보인다. 특히 블루베리 주스는 제이드가든에서 직접 재배한 것으로 유기농 인증까지 받았다.

***위치 제이드가든 내 방문객 센터 문의 033-260-8300**

책과 기차, 간이역이 있는 춘천 풍경

춘천 하면 떠오르는 것 중 김유정을 빼놓을 수 있을까. 춘천은 김유정의 소설 《봄봄》의 배경이자 작가의 고향이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열차는 춘천 실레마을의 김유정역에 내릴 정도니 말 다했다. 학창 시절 문학 기행이라는 이름 아래 김유정문학촌을 몇 번인가 들렀던 기억도 앞섰다. 제이드가든을 벗어나 다음 여정을 고민하던 중 춘천 시내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사실 춘천은 한국 근현대문학을 품어낸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인직의 《귀의 성》, 이외수의 《장외인간》 등 춘천을 배경으로 한 현대소설만 60편이 넘는다.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라는 시를 쓴 유안진 시인은 춘천을 두고 '아직도 가보고 싶고 가서 살고 싶어지고 사랑해 마지않을 꿈속의 여인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바로 그곳'이라고 했는데, 춘천의 그 비밀스러운 매력을 짐작할 수 있을 듯했다. 마침 경춘선 폐철도를 이용해 강촌과 김유정역을 오가는 레일바이크가 운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로워진 춘천을 경험해보기로 했다. 평일인데도 많은 인파가 레일바이크를 타기 위해 김유정역 광장에 모여 있었다. 워낙 인기가 많아 주말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못 탈 정도다. 레일바이크는 북한강변을 따라 1시간 30분 동안 즐길 수 있는데, 강촌역이나 경강역에서도 운행한다. 사실



레일바이크보다 눈에 띄는 것은 김유정역 광장에 설치한 대형 조형물. 북스테이션이라 불리는 이곳은 김유정부터 이순원, 박경리, 김형경, 이기호에 이르기까지 29명의 강원도 작가의 소설책으로 꾸몄다. 이 멋지고 커다란 책들 사이에서 커피 한잔하는 것만으로 춘천과 사랑에 빠질 이유는 충분했다. ***강촌레일파크 김유정역 위치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중리 323-2 문의 033-245-1000**

Gourmet Guide 차마실산

막국수와 사과로 유명한 유포리는 춘천의 작은 산골



마을이다. 이곳의 좁은 시골길을 조심스럽게 달리다 보면 예쁜 한옥집이 눈에 띄는데, 서울에서 춘천으로 귀촌한 주인이 문을 연 '차마실산'이다. 발효차, 국화차, 감잎차, 배도라지 생강차 등 건강 음료가 메뉴판에 가득하다. 차와 곁들여 먹는 양갱은 달지 않게 직접 만든 것인데, 이것만 따로 포장해 가는 사람도 많다고. 차마실산은 정성으로 지은 연잎밥이 유명하다. 마당에서 자라는 허브와 나물로 만든 반찬 또한 정갈하고 삼삼하다. 메뉴에 쓰이는 주재료는 한옥집 마당이나 유포리 이웃 농가에서 공수한다고. 연잎밥은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하고 주문해야 맛볼 수 있다.

***위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178-4**

문의 033-241-6200

문화와 예술을 전이시키며 흐르는 물줄기

춘천은 호반의 도시다. 댐을 만들어 호수가 된 춘천호, 의암호, 소양호가 자리 잡고 있으며 풍광도 아름답다. '환상의 도로'라 이름 붙은, 춘천호에서 의암호를 따라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가 이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이스케이프와 물길을 따라 내달렸다. 춘천댐 계곡과 샛갯봉, 집다리골 휴양림 등을 지나는 코스가 가히 절경이다. SUV 최초로 토크 벡터링 컨트롤을 적용한 이스케이프가 급하게 돌아도 탄탄한 코너링



성능을 선보이니, 산허리를 굽이도는 이곳 드라이브 코스와 환상적 조화를 이룬다. 의암호에는 많은 이들이 물 위를 가르며 수상 레저를 즐기고 있었다. 부근에 송암레포츠타운이 있는 덕분에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윈드서핑, 카약 같은 수상 스포츠와 클라이밍, 카트레이싱, 짐와이어 등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캠핑장이 갖춰진 데다 낚시터로 유명한 의암호가 있어 아웃도어 마니아의 천국이다. 이스케이프를 세워두고 활력 넘치는 의암호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참시, 또 다른 춘천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춘천은 국제마임축제, 춘천아트페스티벌, 애니타운페스티벌, 국제연극제, 춘천인형극제 등이 열리는 명실상부 문화 예술의 도시다. 춘천미술관, 강원도립화목원, 국립춘천박물관 등이 의암호와 춘천호를 따라 늘어서 있으니 문화의 향기가 물줄기처럼 흐르는 셈이다. 이러한 정취를 따라가다 춘천 옥천동과 효자동에 다다랐다. 옥천동에 있는 춘천미술관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옛 중앙감리교회를 새롭게 단장해 2000년 문을 열었다. 고풍스러운 외관에 발걸음이 절로 머문다. 바로 곁에는 공공 소극장인 봄내극장이 자리해 있다. 매년 춘천국제연극제가 열리며, 연중 창작극을

비롯한 다양한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옥천동과 가까운 효자동에는 '낭만 골목'이라 불리는 효자골 벽화 마을이 있다. '담작은 도서관'을 내비게이션에 설정하면 갈 수 있다. 마을의 장승을 대신하는 '로봇태권V 나무조각'과 '하늘지킴이 정크로봇'을 비롯해 골목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벽화가 가득하다. 내친김에 애니메이션박물관에 들러 감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애니메이션박물관은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국내외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로봇스튜디오, 더빙체험관이 인기다. 우리나라 최초 애니메이션과 로봇태권V 등 친숙한 작품을 볼 수 있어 나이를 불문하고 마음껏 볼 수 있다. 실컷 동심에 빠져 머물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마지막 목적지는 이스케이프로 좀 더 멋진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구봉산 전망대로 정했다. 도로가 잘 정비돼 있어 전망대까지 금세 올랐다.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해 데이트 코스로도 좋겠다. 어스름한 기운이 하늘에 감돌기 시작했고, 소양1, 2교와 붉게 물든 소양강, 춘천 시가지가 한눈에 펼쳐졌다. 넓고 안락한 이스케이프 안에서 이 낭만적인 순간을 만끽했다. 이스케이프와 함께한 이번 여행이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송암레포츠타운 위치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644-**

23 문의 033-263-5550
***춘천미술관/봄내극장 위치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73-2 문의 033-241-1856(춘천미술관)/033-253-7221(봄내극장)**
***담작은도서관 위치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69-4 문의 033-256-6363**
***애니메이션박물관 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현암리 367 문의 033-245-6470**
***구봉산 전망대 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139-76 문의 033-241-9044**

Gourmet Guide 델모니코스
지난해 구봉산 전망대 카페 거리에 문을 연, 이탈리아 슐로 푸드를 표방하는 델모니코스. 깔끔한 외관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이곳은 춘천 시내가 바라보이는 전망이 분위기를 배가시킨다. 이탈리아 요리 경력 20년의 대표가 직접 주방을 관리하는 덕분에 음식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천연 발효 드레싱과 100% 홈메이드 소스를 이용해 요리하는 것이 특징. 키조개와 송어회 등 싱싱한 해산물과 함께 나오는 모듬 애피타이저가 인기 메뉴다.
***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139-55 문의 033-252-0999**

1 춘천 시내가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구봉산 전망대. **2** 구봉산 전망대 카페 거리에 문을 연 이탈리아 레스토랑, 델모니코스. **3** 낭만 골목으로 통하는 효자골. 곳곳에 아기자기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4, 5** 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옛 추억에 빠진다.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외관과 1층 전시실 모습.





1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게이트의 야경 2 베를린 대성당 3. 4 베를린 시내를 달리는 콘셉트카 에보스
5 독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베를린 TV 탑 6 4도어 걸링 구조로 만들어진 날렵한 외관



Evos in Berlin

포드 에보스와 함께 독일 베를린의 유서 깊은 유적지 곳곳을 둘러보았다.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떠난 베를린 여행기.

Editor 이회진 참고 도서 《저스트 고 독일》, 사공사

*상기 이미지는 판매되지 않는 포드자동차의 콘셉트카로 연출한 장면입니다.

포드의 콘셉트카 에보스를 타고 베를린 시내 곳곳을 누볐다. 에보스와 베를린은 닮은 점이 참 많은 듯했다. 특히 많은 자동차 오너가 갖고 싶어 하고 요구 사항을 실현한 첨단 시스템과 과거의 허울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는 베를린의 모습이. 에보스는 4인승 스포츠 쿠페로 리튬이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다. 가솔린과 전기모터를 개별적으로 구동할 수 있으며, 전기차 모드를 지원하는 에보스는 4도어 걸링 구조로 만들었으며, 날렵한 외관을 자랑한다. 육각그릴 등은 여전히 포드를 연상시키지만, 전면부는 다이내믹하게 디자인해 색다른 느낌을 준다. 최대 항속거리는 800km 이상. 운행 중 클라우드 인터넷에 접속해 스티어링과 브레이킹 등을 최적화할 수 있고, 운전자의 일정 관리와 알람 설정도 할 수 있다. 에보스가 스모그로 가득 찬 도시로 들어섰을 때, 운전자는 날씨와 오염도 자료에 접속해 가장 깨끗한 거리를 검색할 수 있다. 또 중지 이동 트래픽 계기반과 브레이크를 조절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가 목적지에 접근했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 비접촉식 충전기가 있는 주차 공간을 예약하거나 주차하기 전에 알맞은 곳을 찾아주기도 한다. 이처럼 스마트한 에보스를 타고 베를린 시내를 달리다 보니 행복감마저 느껴진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티어가르텐(Tiergarten)'. 과거에는 제후들의 사냥터로 이용되던 곳인데, 1830년부터 공원으로 바뀌었다. 공원 곳곳에 국가 통치자들과 예술가들의 기념상이 있으며, 한가운데에는 1864년 프로이센-덴마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승기념탑(Siegestaule)'이 있다. 탑 꼭대기에는 '골델제'라 불리는, 금박을 입힌 인물상이 세워 있는데 이곳에 오르면 아름다운 베를린 시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 Gate)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1744~1797)의 명령으로 1788년부터 1791년까지 3년에 걸쳐 지은 것이다. 독일 분단 시절 동서 베를린의 경계였으며, 1989년 11월 10만여 명의 인파가 이 문 앞에 운집한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후 통일과 함께 독일과 베를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프러시아 황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1770~1840)는 건축가 칼 프리드리히 쉰켈(1781~1841)에게 슈프레 강에 떠 있는 섬에 위치한 미술관 단지 안에 자신의 컬렉션을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을 짓게 했고, 이후 신 미술관, 보데 미술관이 잇달아 세워지면서 이 섬에는 '박물관 섬(Museuminsel)'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베를린 대성당(Berliner Dom)'은 1747년부터 짓기 시작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다. 검게 그을린 듯한 벽면과 푸른빛 돔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원래는 무척 화려한 건물이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



2

서베를린을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관문 체크포인트 찰리(Checkpoint Charlie)를 지나 포츠담 광장(Potsdamer Platz)으로 향했다. 명칭은 베를린 남서쪽으로 25km 떨어진 포츠담(Potsdam)이라는 도시에서 유래했다. 이곳은 포츠담과 베를린을 잇는 오래된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교차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에서 가장 혼잡한 교차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겪으면서 베를린 장벽으로 양분된 이래 과거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황량하게 방치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크게 재개발되어 오늘날 화려한 신도시의 심장부로 부상했고, 베를린을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베를린 TV 탑'이다. 전체 높이 368m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독일 분단 시절 동독 정부는 베를린을 상징할 만한 건축물로 이 탑을 건축했다고 한다.

어느새 베를린에서 포드의 콘셉트카 에보스와 보낸 꿈같은 시간이 지났다. 아쉽지만 미처 둘러보지 못한 곳은 다음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렸다.

1 베를린 시내의 야경 2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실내 공간 3 슈프레 강에 떠 있는 섬에 위치한 박물관 섬 4. 5 스마트한 기능이 가득한 콘셉트카 에보스

엄청난 폭격으로 소실되어 지금은 단순하게 바뀌었다. 프로이센 왕과 독일 제국 황제를 배출한 명문가 호엔촐레(Hohenzolle) 가문의 묘지 용도로 지은 교회였기에 지금도 안에 들어가면 눈부시게 화려한 호엔촐레 가문 사람들의 관이 놓여 있다.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Konzerthaus Berlin)'는 베를린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꼽히는 '젠다르멘마르크트(Gendarmenmarkt)'에 있는 콘서트홀이다. 고전주의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로 칼 프리드리히 쉐넬이 설계했다. 1821년 5월 완공 당시에는 왕립 극장(Königliches Schauspielhaus)으로 개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폭격으로 건물이 크게 파손된 것을 재건과 개축을 거쳐 1984년 10월 1일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콘서트홀로 문을 열었다. 건물 외벽에는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티크와 발타자르 야콥 라트게버가 조각한 여러 작곡가의 조각상이 세워 있다. 1600석 규모의 대형 콘서트홀과 400석 규모의 작은 콘서트홀로 이루어져 있다.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연합군과 외교관, 외국인, 여행객이 동베를린과



3



4



5

토러스와 떠난 서울 밤 드라이브 가이드

Night Drive in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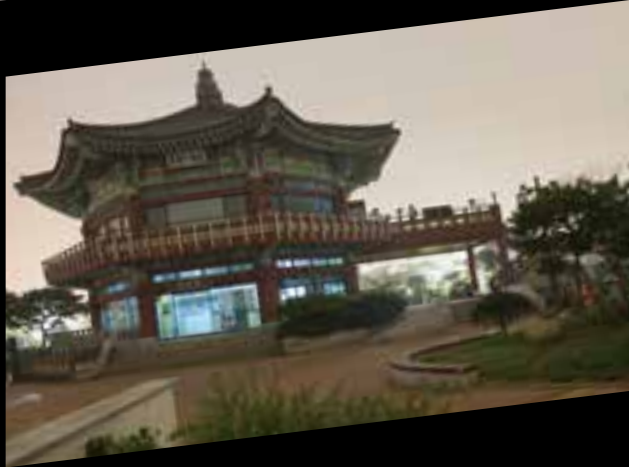
서울의 밤을 달렸다.
북악스카이웨이와 남산 소월길이 근사한 야경을 선사했다.
강인하고 날렵한 포드의 베스트셀링 패밀리 세단 토러스와 함께하니 이 밤이 길지 않았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민성원, 민성필 Cooperation N서울타워(www.nseoultower.com)





옛것을 따라 달리는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서울 북악산 능선을 따라 자하문에서 정릉 아리랑고개에 이르는 북악스카이웨이. 전통적인 서울의 드라이브 코스다. 1968년 처음 개통했는데, 당시에는 가난한 부부들이 택시를 타고 북악스카이웨이를 달리는 것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도 연인들의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로 인기 있다. 주변에 성북동, 삼청동, 사직동, 부암동이 있어 드라이브 중간에 들러볼 곳도 많다. 덕분에 북악스카이웨이는 짜인 코스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발길 닿는 동네부터 머물고 싶은 동네로 자유롭게 행동을 꺾어도 무방하다. 북악스카이웨이를 경험하는 드라이브 가이드 다섯 가지를 참고하자.



1 감사원을 지나 성균관대 후문까지

감사원에서 성균관대 후문까지 휘어 도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 가로수가 우거진 이 코스는 사계절 운치 있는데, 특히 봄이면 화려한 꽃길을 자랑한다. 감사원이 있는 삼청동에 들러 핫한 레스토랑을 찾는 것도 좋을 듯. 삼청동에는 늦은 시간까지 전시하는 갤러리도 있다. 예담갤러리는 평일 저녁 7시, 주말 8시까지 문을 연다. 1층에서는 카페도 운영한다. 삼청동길 끝에는 삼청공원이 있는데 밤에 이곳을 찾는 연인은 반드시 결혼한다는 속설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광정보 사이트의 설명.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만큼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책로의 밤 풍경이 가히 환상적이다.

Navigation Keyword : 감사원, 예담갤러리, 삼청공원

2 와룡공원과 북악산 서울성곽길

감사원에서 성균관대 후문으로 가는 코스를 택했다면 와룡공원에 가보자. 성균관대 후문 바로 근처에 있는 이곳은 북악산 서울성곽길과 이어진다. 서울성곽은 서울을 둘러싸고

1 토러스의 세련된 가족감 만끽하기

남산의 남쪽 중턱에 산세를 따라 구불구불 나 있는 소월길은 한적해서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남산의 남과 북으로 급하게 이동해야 할 차량은 남산 아래에 난 세 개의 터널을 이용하기 때문. 남산의 아름다운 수목 사이로 편안하고 부드럽게 치고나가는 토러스의 가족도를 즐기는 것만으로 소월길은 달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Navigation Keyword : 하얏트 호텔

2 남산케이블카 승강장과 돈가스집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남산의 명물. 남산 정상인 N서울타워까지 오르려면 이곳에 주차하고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은 성인 기준 편도 6000원, 왕복 8000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경치는 덩. 케이블카를 타지 않더라도 승강장 주변에 위치한 돈가스집에 들러보자. 남산의 먹을거리를 대표하는 왕돈가스를 맛볼 수 있다.

있는 조선시대의 도성을 말한다. 와룡공원 앞에 잠시 차를 대고 갈 수 있다. 발아래 펼쳐진 성북동 쪽 풍경이 아름답다.

Navigation Keyword : 와룡공원

3 삼청각 카페 다원에서 한옥 정취 즐기기

와룡공원에서 삼청각 방향으로 달린다. 동백헌과 취한당 등 다섯 채의 한옥을 산책 삼아 여유롭게 둘러본 뒤 일화당 2층에 있는 카페 다원의 테라스에 앉아 탁 트인 서울 전경과 북악산을 즐길 수 있다. 전통차와 커피, 한정식과 이탈리안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일화당에서는 전통 공예 전시나 국악 콘서트도 즐길 수 있다.

Navigation Keyword : 삼청각

4 북악스카이웨이 코스의 정점, 팔각정

북악스카이웨이는 달리는 중간 서울의 경치가 도로 옆으로 펼쳐지고, 도심 속 도로답지 않게 10만여 그루의 가로수가 뻗뻗이 들어서 있다. 이 북악스카이웨이 중간에 자리한

Navigation Keyword :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3 국립극장과 반얀트리 서울

드라이브 중간 N서울타워에 오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국립극장에 주차한 뒤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것. 해오름극장 앞을 거닐며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국립극장 맞은편에는 반얀트리 서울이 자리해 있는데 국립극장의 공연 관람과 호텔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도 선보이니 참고할 것. 남산 성곽길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Navigation Keyword : 국립극장, 반얀트리 서울

4 N서울타워에서 로맨틱 무드를

2008년 세계타워연맹이 수여하는 이노베이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2009년 서울디자인자산 51선에 선정된 N서울타워. 2012년에는 'Global Tower Top 10'에 진입.

팔각정에는 커피와 와인을 파는 북악스카이라운지와 한식당, 매점 등이 있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서울 야경이 매력적인 곳이다. 창의문에서 종로구, 성북구 경계 지점에 이르기까지 북악스카이웨이를 따라 약 5km에 이르는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다.

Navigation Keyword : 팔각정

5 내친김에 평창동까지

팔각정에 사람이 너무 많아 붐빈다면, 부암동이 식상하다면 평창동까지 달려보는 것도 괜찮다. 가나이트센터 근처에 위치한 키미아트&카페는 밤 11시까지 문을 여는 데다 전망이 좋아 팔각정이나 북한산 산세, 저 멀리 빛나는 성곽 불빛을 감상할 수 있다. 1층의 갤러리는 7시까지만 문을 연다.

Navigation Keyword : 키미아트&카페

파리의 에펠탑, 일본의 도쿄타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N서울타워의 '엔그릴'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 환상적 야경을 감상하며 미술관 스타 세프 던컨 로버트슨의 정통 프렌치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다.

Navigation Keyword :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국립극장

5 숨은 아트쉘터 찾기

서울시가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버스정류장에 공공미술을 입히는 아트쉘터(Art Shelter)를 서울 곳곳에 설치했다. 소월길에서도 이를 볼 수 있는데, 보성여중교 버스정류장인 김재영의 〈휴식〉이라는 작품이다. 텔레비전 모양의 설치물이 버스정류장으로 등장하니 위트 있고, 포토 존으로도 손색없다. 후암약수터 버스정류장인 주동진의 〈남산의 생태〉, 하얏트 호텔 정류장인 〈스카타고〉, 김현근의 〈침표, 또 다른 여정〉도 찾아볼 수 있다.

Navigation Keyword : 보성여중교, 후암약수터, 하얏트 호텔





약속을 지키는 진정한 딜러십 선인자동차 장인우 대표이사

올해 업계 최고를 기록한 포드의 성장세에 공식 딜러사 선인자동차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올 2월 취임한 장인우 대표이사. 포드의 비전과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그에게서 신뢰로 뚫뚫 뚫친 진정한 딜러십의 모습을 보았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민성원

약재 속에서 지켜낸 포드 딜러십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말투에 힘이 있다. 누구든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 보면 금세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이유다. 그는 선인자동차의 전무와 부사장으로 일한 것은 물론 일본 모건스탠리 증권사, 홍콩 크래리언 증권사를 거쳐 YNK 코리아, 근화제약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굵직한 요직을 수행해온 글로벌 경영 전문가다. 다양한 분야의 리더로 활약해온 그가 올 2월 새롭게 선인자동차의 대표이사로 합류하게 된 것은 현재 선인자동차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 7월까지 포드자동차가 전년 대비 42.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연 업계 최고이자 포드의 한국 시장 진출 이래 최대 성장률을 자랑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딜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프터서비스에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재구매율을 높이는 세일즈 노력 등 성장의 가속도를 높여야죠. 중장기적으로 입지를 확실히 굳히려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가 이렇듯 고삐를 풀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선인자동차가 설립된 것은 1996년. 당시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지 겨우 10년이 되던 해였다. 국내에 선보이는 브랜드도 많지 않은 그 무렵, 선인자동차는 포드의 상품성과 가능성을 보고 딜러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인자동차는 강남, 부천, 강릉 전시장과 용담동 서비스센터 등을 확보하고 사업 첫해 985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1997년에는 1810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곧바로 IMF가 터지고 한 달에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자 당시 많은 경쟁 수입차 딜러사는 물론, 포드와 계약을 맺은 타 딜러사도 모두 딜러십을 반납했다. 하지만 선인자동차는 한번 차를 산 고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아래 어마어마한 적자 위기를

이겨내고 포드의 딜러사로서 자리를 지켜냈다.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지만, 1996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희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버텸습니다. 함께했던 타 딜러사까지 포기하는 상황에서 선인자동차는 포드의 단독 딜러사로서 세일즈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덕분에 전국 16개의 판매 전시장과 16곳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는 등 국내 거의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몇 안 되는 수입차 딜러사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인자동차의 목표는 오히려 더 커졌다고, 장인우 대표이사는 말한다. 약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딜러십을 지켜냈듯,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최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그대로 전해졌다.

포드의 품질과 맛먹는 명품 서비스

최근 한국을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 언급한 포드 앨런 머렐리 회장은 경기 불황에도 매출 성장세가 높은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장인우 대표이사 역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해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다고 설명한다. 현대, 기아, 르노삼성 등 현지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국산 기업의 점유율이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시장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드의 우수한 상반기 판매 기록은 분명 일시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 아니다. 장인우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정보력이 강해지면서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대, 오랜 역사의 ‘잘 만든 차’라는 인식이 확대된 것이라 분석한다. 선인자동차 역시 이러한 품질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먼저 부품 가격을 한 단계 내리는 등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이미 확보한 세일즈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친화적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고객과 소통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컴플레인 고객에 대한 완벽한 대응과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얻기 위해 경영진까지 고객의 불만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연구한다.

“같은 차를 사도 선인자동차에서 사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최고의 애프터서비스를 위해 시설과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할 예정입니다. 물론 전시장만 화려하고 크게 꾸며 마구 늘리는 것이 아니라, 딜러십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정비 시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포드 강남 신사 전시장의 리뉴얼 오픈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3층의 서비스센터가 인상 깊습니다. 워크베이만 다섯 개를 설치해 강남 및 서초지역 고객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됐죠.” 선인자동차는 2013년 판매 목표를 5000대로 정했지만 올해 말까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장인우 대표는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있다. 2014년까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시키고, 2018년에 이르면 판매 차량을 1만5000대에서 2만 대까지 늘리는 것.

“제 좌우명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있습니다.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자. 이 두 가지가 의외로 지키기 힘들더군요. 포드코리아와 고객에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장인우 대표이사는 선인자동차의 원대한 목표를 힘 있게 말하기도, 정작 좌우명과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는 ‘약속’이라는 소박한 단어를 내세웠다. 단순함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고 했던가. 선인자동차의 비전에 기대감이 생기는 건 당연했다.

포드 익스플로러와 함께한 인터뷰

Artist Yoon Han

피아니스트이자 싱어송 라이터, 뮤지컬 배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아티스트로서 끼와 매력을 발산하는 윤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와의 유쾌한 인터뷰.

Editor 이희진 Photographer 민성필

작사, 작곡, 프로듀싱, 연주, 노래까지 맡으며 그간
선보인 1집 <UNTOUCHED>, 2집 <For This
Moment>의 정규 앨범 2장과 싱글앨범 <B형 여자>,
그 외 드라마 OST 앨범과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가 오는 10월 미니앨범 <피아노 치는
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 6곡을 수록할 예정인데
기존의 윤한 스타일을 벗어나진 않지만 좀 더
경쾌하고 밝아진 느낌일까. 타이틀곡 '피아노 치는
남자'는 대중적인 멜로디에 감미로운 그의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곡이다.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녹음
작업을 마친 그의 노래를 미리 듣는 행운을
얻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가벼워지고 산뜻한
분위기였다. 요즘은 세계 평화에도 관심이 많아져
사랑, 이별 이야기가 아닌 평화를 다룬 'Sing'이라는
곡, 디지털 싱글로 발표했던 'B형 여자', 평기한
재즈 느낌나는 영어곡이다. 이번 앨범은 색다르게
뮤직비디오도 계획하고 있다. 에디터는 어떤
콘셉트인지 이야기 들었지만 팬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오프더레코드로 하겠다. 다만 윤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 수 있으리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어느 한 장르에 자신을 고정하기 보다는 아티스트
윤한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앨범 발표
이외에도 수많은 기획 공연과 페스티벌에 참여한
계획이다. 지난 4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6월 '레인보우 페스티벌'에 참여했고, 10월에 열리는
'그린 민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페스티벌 공연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1, 2집의 앨범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차분한 분위기여서 오픈된 야외 공간에서 공연하는 페스티벌에는 기존 곡이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매하는 앨범은 제 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윤희 스타일’의 비트로 점점 빨라지고, 밝고 리듬감 있는 곡을 선보이려 해요.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후렴구를 따라 부르거나, 이런 부분을 노렸죠.”

그리고 그가 올해 계획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1~12월 전국 투어를 하는 것이다. 그는 8월 31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선보이는 〈Sound Off〉 공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다.

“8월 31일에 열릴 공연은 지금까지의 공연과는 조금 달라요. 기존 공연이 피아노 연주, 노래, 이벤트 등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다소 무거운 공연이 될 것 같아요. 〈B형 여자〉싱글을 내고 음악이 너무 대중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스스로 자문했어요. 음악적으로 저울을 맞출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좀 더 무거운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죠. 정통 재즈, 영화음악 등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의 트리오로 2시간 내내 인터미션 없이 연주만 보여줄 예정입니다. 온전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고, 저한테는 또 하나의 실험적 도전이 되는 셈이죠.”

아쉽게도 이번 공연은 전석이 매진이라고. 이번 공연에 따라 연말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어떤 스타일로 선보일지 고민 중이다. 12월 공연은 예술의전당에서 서울 피날레 공연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층 크다.

지난해 봄 액터 뮤지컬 〈모비딕〉에도 출연한 그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뮤지컬은 물론 브라운관, 예능

등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단다. 그만큼 열정과 끼로 뚫돌 뚫친 그다. 〈모비딕〉출연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가장 큰 변화는 공연을 할 때, 지금처럼 인터뷰할 때나 화보 촬영을 할 때, MBC 〈아름다운 콘서트〉에서 MC를 맡았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었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해졌다.

요즘 그에게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다. KBS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맘마미아〉에 박은영 아나운서의 소개팅남으로 출연한 것.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는 등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프로그램에 잠깐 나갔기에 검색어 1위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촬영하며 고생 좀 했는데 잘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반응이 그 정도일 줄이야. 촬영하면서 약간 어색했는데 편집을 잘해주셨더라고요. 훈남 스타일료요(웃음). 이후 외출을 했는데 많은 분이 알아보시더군요. 악수나 사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많아졌고요. 당연히 기분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되기도 해요.”

이처럼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그는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영화음악작곡학을 전공하고, 상명대학교 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 박사 과정 중 마지막 관문인 논문만 앞둔 재원이다. 좋아하는 재즈 아티스트 ‘키스 자렛’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논문이 완성되면 국내 최초의 박사 논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음악적 역량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열의도 대단하다.

“훗날 공부하는 것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것은 변함없지만, 요즘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5년 정도 열심히 하다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피아니스트, 아티스트로서

최전방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엔터테이닝을 하잖아요.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되면 그런 것보다는 한발 뒤로 물러나 제작자, 프로듀서로 일하고 싶어요. 작곡과 드라마 OST를 꾸준히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죠. 드라마나 영화음악 감독도 맡아서 하고 싶어요.”

하지만 5년 동안은 최대한 많은 것을 해볼 생각이다. 또 평소 차를 좋아하는 그와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타고 있는 차량은 외국 브랜드의 세단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포드 익스플로러를 구매하고 싶다고.

“SUV 차량의 매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익스플로러는 묵직하고 남성적 성향이죠. 또 미국에서 머스탱 코브라를 타본 적이 있어요. 무게감과 엔진음이 굉장히 매력적이더군요.”

그에게는 오픈카에 대한 로망이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부모님의 반대로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선택하게 되었다. 대신 얼마 전 다녀온 제주도 여행에서 오픈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남부 해안도로를 오픈카를 타고 달려보고 싶어요. 음악은 끄고 엔진음을 음악 삼아 날씨와 경치를 즐기면서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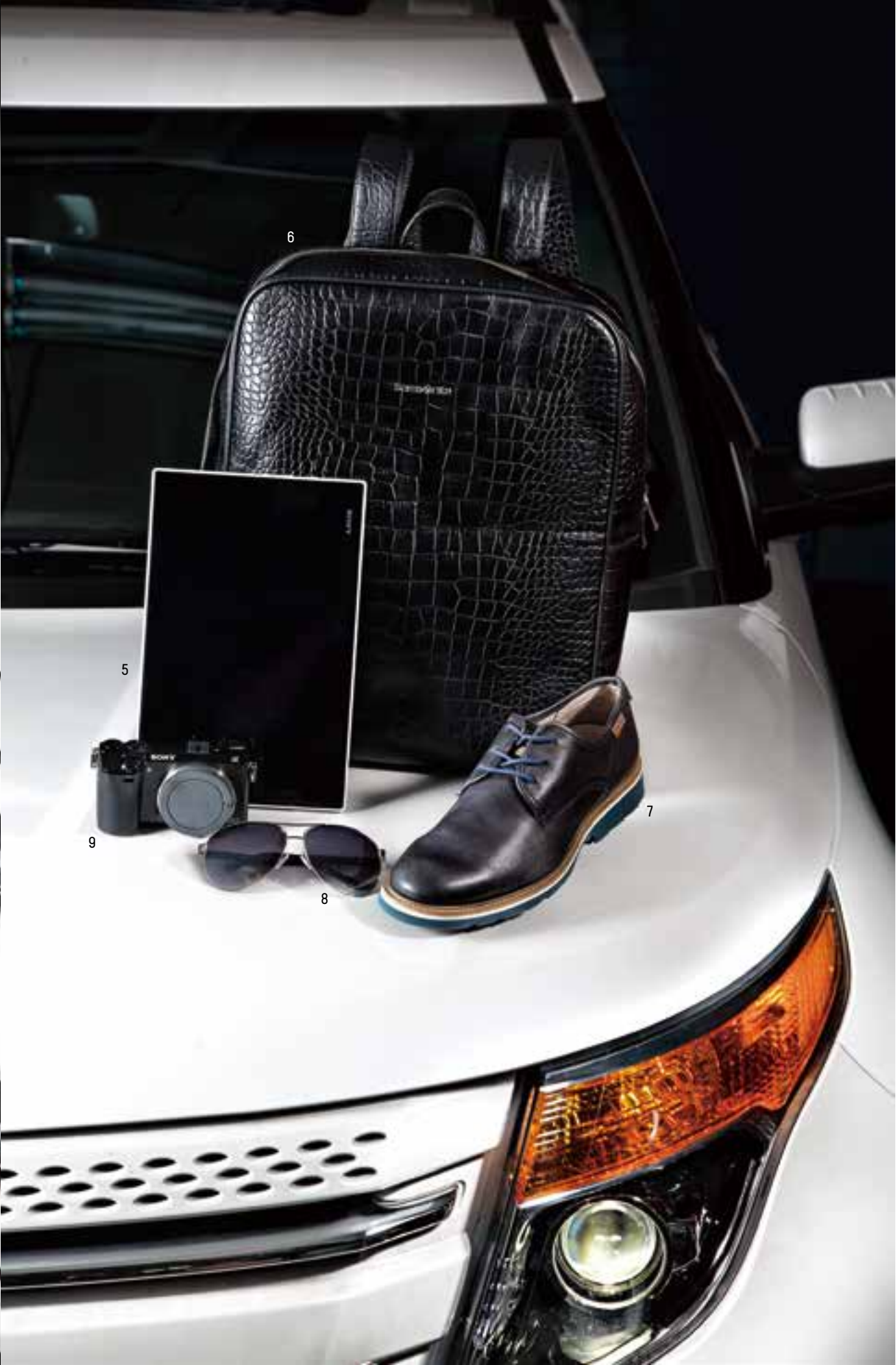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여러 취미 활동과 일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 화려한 외모와 달리 소탈하면서 천진난만한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티스트 윤희. 그런 그에게 어느 누가 반하지 않을까.



Exploring the Guy's Car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매일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익스플로러.
차를 달은 개성 뚜렷한 다섯 오너의 차 안을 들여다봤다.

Editor 이지성 Photographer 민성필



건축가의 보닛

(왼쪽) 1 디자이너이자 건축가 론 아라드와 겐조가 협업해 만든 건축적 모양의 향수. 엔아이덴티파이드 프래그런스 오브젝트. KENZO 2 7대를 이어온 조항사 기문이 만든 향수 어벤투스. 베르가모트와 과일 향이 특징이다. CREED 3 유분기를 조절해 하루 종일 매트한 피부를 유지해주는 로션. 디어 매트. DTRT 4 중후한 우드 향과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조화를 이룬 향수. 아티산 블레이크. JOHN VAVATOS (오른쪽) 5 두께가 6.9mm에 불과한 태블릿 PC. 엑스페리아 태블릿. SONY 6 다양한 스타일에 유용한 엘리게이터 패턴의 백팩. 제러드. SAMSONITE 7 은은한 광택에 블루 컬러 스트랩으로 감각을 더한 핸드메이드 가죽 슈즈. PIKOLINOS by ONYSOLE 8 스릴 소재 프레임. 블루 컬러 렌즈로 시크한 매력이 특장인 보잉 섀클러스. GRIFFI 9 미러리스 카메라로는 최초로 2430만 화소를 구현한 넥스7. SONY



비즈니스맨의 백 시트

1 골드 라인으로 마무리한 화이트 지기 소재 시가 플레이트 **DAVIDOFF by THE SHERLOCK** 2 견과류 향이 진한 시가 **THE SHERLOCK** 3 세로줄을 음각으로 새긴 실버 컬러 라이터 **S.T.DUPONT** 4 베르가모트와 오렌지의 조합으로 완성한 향수 **ACQUA DI PARMA** 5 클래식한 면도 롤, 세이빙 크림, 브러시, 면도기, 거치대, 레티볼로 구성되어 있다 **KACHET** 6 속면을 도와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매직 인 미트나잇 마스크 **FROSTINES** 7 레오파드 패턴의 프레임용 렌즈 위쪽에 매치한 안경 **GRIFFI** 8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블랙 실버 컬러가 조화로운 만년필 **S.T.DUPONT** 9 노트북, 서류를 담을 수 있는 레더 백 **SAMSONITE** 10 모니터를 슬라이드하면 키보드가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PC, 바이오 듀오 **SONY** 11 안경 안에 320인치 크기의 3D 화면 영상이 펼쳐지는 패스널 시어터 모베리오 **EPSON**

패션 디자이너의 대시보드

1 알콜과 보디, 모발에 바르면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욱시암의 멀티 밤 **L'OCCITANE** 2 이탈리아의 음료 브랜드 캄파리와 브릭스가 협업해 만든 다이어리 **BRIC'S** 3 빈티지한 컬러와 질감을 표현한 핸드메이드 가죽 부츠 **PIKOLINOS** by **OMYSOLE** 4 레오파드 패턴의 원형 프레임 안경 **GRIFFI** 5 2020년 화소, F1.8의 칼자이스 렌즈를 장착한 하이엔드 카메라 **RX100, SONY** 6 병의 디자인부터 향까지 생기 넘치는 향수, 모스키노 포에버 **MOSCHINO** 7 두피의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주는 고체 샴푸 **SKINRX**



트레이너의 엔진룸

1 젖은 샤워로 거칠고 건조해진 피부를 매끈하게 해주는 솔트 스크럽, L'OCCITANE 2 우롱 차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바탕으로 만든 캔들, 심신을 안정시킨다. ACQUA DI PARMA 3 이온음료로 운동 마니아에게 사랑받는 천연 코코넛 워터, 비타코코, VITACOCO 4 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보디 스프레이, 액스 팀 스페이스 보디 스프레이, AXE 5 블루라이트 테라피, 프락셔널 에너지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부티 기넷 실론 블루, HOMESKINOVATIONS 6 탈착이 가능한 클렌징 브러시가 함께 구성되어 면도와 클렌징 두 가지로 사용 가능한 면도기 영킷, PHILIPS



Cooperation
ACQUA DI PARMA(02-517-5218), AXE(070-4616-0315), BIODERMA(080-0011-7676),
BRIC'S(02-6241-0803), CREED(070-4077-4203), DTRT(1544-7077), EPSON(070-7115-0303),
FERRARI by LOGIC(02-546-0203), FROSTINGS(080-023-7007), GRIFFI(02-516-4088),
HOMESKINOVATIONS(080-246-1234), JAGERMEISTER(070-4616-0309), JOHN
VAVATOS(02-3443-1809), KACHET(070-7803-3855), KENZO(02-542-0244),
KIEHL'S(080-022-3332), L'OCCITANE(02-3014-2850), MOSCHINO(02-3453-7577),
OMYSOLE(02-516-4088), PHILIPS(02-6925-1562), STOUTPONT(02-2106-3436),
SAMSONITE(02-599-7770), SANTA MARIA NOVELLA(02-546-1612), SKINRX(1566-1140), SONY(02-6370-8084), THE SHERLOCK(02-790-3388), VITACOCO(080-667-0516)



포토그래퍼의 트렁크

1 구김이 많스러운 트롤리 백, 식물성 소재인 비스코스로 만들어 마모, 오염이 적다. BRIC'S 2 브라운 컬러의 렌즈, 스틸 소재 프레임의 선글라스, GRIFFI 3 목에 걸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 야외 활동 시 편리한 선블록, BIODERMA 4 사용후수를 컬러와 향태가 더욱 멋스럽게 변하는 브라운 컬러 보스틴백, BRIC'S 5 페라리의 가죽 시트, 유려한 외관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헤드폰, FERRARI by LOGIC 6 시가를 위한 최적의 온도과 습도를 유지해주는 시가 박스, THE SHERLOCK 7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 가능한 울인원 보디 워시, KIEHL'S 8 영하 18℃에서도 영지 않는 리큐어 예거마이스터, 하브, 생강 등 천연 재료의 풍미가 살아 있다. JAGERMEISTER 9 세이빙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톤과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에프터셰이브 로션, SANTA MARIA NOVELLA 10 워싱 캔버스 소재로 만들어 빈티지한 감성이 묻어나는 운동화, NATURAL WORLD by OMYSOLE

Secret of Moist Men

жат은 면도와 스트레스, 피로에 지친 남자의 피부는 거칠어지기 쉽다.

여름 내내 강한 자외선으로 각질까지 두꺼워진 상태.

건조한 바람과 번덕스러운 일교차까지 더해지면 탄력과 수분을 몽땅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 가을, 건조함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를 위한 스킨케어 팁.

Editor 김미라 Photographer 민성원



1 가벼운 텍스처와 산뜻한 건조 향이 덧발라도 끈적임 없이 촉촉하다. UV 프로텍트 모이스처라이저. **SK-II MEN** 2 수분을 가득 응축한 젤리 타입 수면 팩. 사막장미 성분이 자는 동안 수분 밸런스를 촉진한다. 매직 인 미드나잇 마스크. **FROSTINES** 3 피지 분비를 억제한 후 수분을 채우는 자성 피부를 위한 수분 케어 제품. 티트리 로즈 밸런스 & 모이스처 크림. **AROMATICA** 4 즉각적인 수분 공급은 물론 마백과 주름 기능성으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한다. 포 맨 스테이 영 울안원 플루이드. **SO NATURAL** 5 고령토와 천연 식물 성분이 세안 후에도 땅김 없이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내츄럴 스킨케어 포 맨 바 슝. **BURT'S BEES** 6 발효 지질막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 보습 효과를 오래 지속시킨다. 시크릿 포맨 프로그래밍 에센스. **SU:M 37** 7 풍부한 미네랄이 푸석푸석하고 거친 피부를 정리해준다. 얼굴의 부기까지 케어하는 제품. 인스턴트 라이닝 에센스. **FROSTINES** 8 젤 타입 토너가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며, 면도 후 피부 자극을 완화한다. 퍼펙션 옴도 토너. **HOLIKA HOLIKA** 9 남자를 위해 탄생한 가벼운 질감의 아이 케어 제품. 피곤해 보이는 눈가를 촉촉하게 가꾼다. MK맨 어드밴스드 아이크림. **MARY KAY**



Care tip 1 Cleansing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가장 좋은 솔루션은 자주 세안을 하지 않는 것. 대신 아침저녁 하루 두 번, 제대로 된 방법으로 클렌징한다. 아침에는 워터 타입 클렌저나 토너로 가볍게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신 저녁에는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제품으로 꼼꼼히 세안할 것. 거품을 헝글 때는 10회 이상 패팅해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다. 적당히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면 흡수된 물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된다.

Care tip 2 Moisturizers

눈가와 입가가 특별히 건조하거나 홍조가 생기고 가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신경 써서 보습 제품을 한 번 더 덧바른다. 얼굴 전체에 제품을 한 번 바르고 흡수가 잘되도록 가볍게 두드린다. 10초 후 홍조가 생기거나 땅기는 부위에 소량을 덜어 한 번 더 덧바른다. 환절기에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다면 조금 무거운 질감의 보습 크림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무거운 질감의 보습 크림은 흡수가 잘 안 되므로 제품을 바르고 10초 정도 여유를 두고 손바닥을 비벼 온도를 높인 뒤 가볍게 얼굴을 감싼다.

Care tip 3 Face Oil

수분만 공급한다고 해서 수분 케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데,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유분이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 페이스 오일은 완벽한 수분 케어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보습 제품을 한 차례 바르고,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감싸며 흡수시킨다. 세안 후 마지막 행구는 물에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나이트 크림에 한두 방울 섞어 바른다. 수분 팩에 섞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Care tip 4 Mist

건조한 공기가 가득한 실내에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는 오피스 맨이라면 미스트를 꼭 챙길 것. 건조한 환경에 피부가 오래 노출되면 지성 피부라 해도 푸석해지기 일쑤다. 특히 30대부터는 표피 재생 주기가 늦어져 트러블까지 유발한다. 수분 함량이 높은 산뜻한 질감의 아이템이 좋다.

Care tip 4 Pack

환절기, 갑작스러운 건조함으로 피부의 수분 밸런스가 깨지면 잔주름은 물론 모공과 탄력 등 피부 노화 증상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주 1회 정도는 보습 팩을 하는 날로 정하자. 피부 세포까지 충분히 수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각질이 심한 경우 자극적이지 않은 딥 클렌징 제품으로 피붓결을 정돈한 뒤 팩을 해야 효과가 있다.



Cooperation

SK-II MEN(080-023-3333), FROSTINES(080-023-7007), AROMATICA(1600-3689), SO NATURAL(1644-6912), BURT'S BEES(080-308-8800), SU:M 37(080-023-7007), HOLIKA HOLIKA(080-757-1339), MARY KAY(02-2016-7770), LANEIGE HOMME(080-023-5454), DHC(080-757-5333), KACHET(080-023-7007), PRIMERA MEN(080-023-5454), CLARINS MEN(080-542-9052), SUISKIN(1588-3593)

1 미세한 거품과 블루 비즈가 모공을 깔끔하게 클렌징하며 해초 성분이 민감한 남성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한다. 에너지 포스 옴 클렌징 폼. **HOLIKA HOLIKA** 2 유효기능 시어버터가 건성 피부와 손상된 피부를 개선한다. 오가니언스 에센셜 크림. **PRIMERA MEN** 3 밤사이 효도 발효 추출물이 피부 속 수분 핵심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생성한다. 액티브워터 슬리핑 팩. **LANEIGE HOMME** 4 스페인산 올리브에서 소량만 얻을 수 있는 오일을 함유, 천연 피지막을 형성해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올리브 버진 오일. **DHC FOR MEN** 5 라벤더 오일과 로즈힙 오일층이 유분 보호막을 형성해 보습력이 강화된다. 라벤더 프로컬 워터. **AROMATICA** 6 이드록시사드 워터를 함유해 즉각적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채워주는 수분 크림. 워터드롭 젤 크림. **KACHET** 7 피부 표면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하며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보디용 보습 제품. 바디 모이스처 스프레이. 면도 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 손실이 억제되도록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준다. 슈퍼 모이스처 젤. 바디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해 적은 양으로도 매끄러운 손을 가꿔준다. 액티브 핸드 케어. 모두 **CLARINS MEN** 8 휴대하기 좋은 크기의 미스트. 빙하수의 풍부한 미네랄과 서양 장미꽃수가 뛰어난 보습 작용을 한다. 알프스 퓨어 미스트. **SUIKIN**

깊고 우아한 당신에게 보내는 찬사

Luxury Wine for Gift

와인 한 병에 담긴 역사와 전통, 문화를 헤아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받는 사람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선물을 고르는 데 와인만 한 아이템도 없을 듯.
스토리와 품격을 전하는 명품 와인 리스트를 꼽았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민성원 Cooperation 레밴드매일(02-3497-6888),
신세계L&B(02-727-1685)

1 빌카르 살몽 브뤽 로제 Billecart-Salmon Brut Rose For 섬세한 감성이 남다른

200년의 역사, 7세대에 걸쳐 전수받은 빌카르 살몽의 양조 기법으로 창조된 브뤽 로제. 포도 품종 블렌딩으로 완벽한 핑크색을 재현했다. 붉은 과일과 섬세한 향과 시트러스 향이 풍부한 아로마를 만들어내며, 무겁지 않으면서 우아한 풍미를 자아낸다. 빌카르 살몽은 1919년 니콜라 프랑수아 빌카르와 엘리자베스 살몽 부부가 설립한 유서 깊은 샴페인 하우스로 '섬세함', '균형감', '우아함'을 모토로 제품을 생산한다. 각각의 포도 품종 · 포도밭 구획에 따라 분리해 양조한 뒤 와인메이커의 신중한 테이스팅 후 블렌딩한다. 남다른 섬세함을 지닌 이에게, 그러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으며 자신만의 영역을 창조하는 이에 대한 찬사로 아깝지 않은 선물이다.

2 라포스틀 클로 아팔타 Lapostolle Clos Apalta For 끊임없는 노력으로 1위의 영광을 차지한

라포스틀은 프랑스의 마르니에 라포스틀 가문이 칠레에 설립한 와이너리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칠레의 우수한 테루아를 조합해 세계 정상급 와인을 만들고 있으며, 클로 아팔타는 라포스틀을 대표하는 와인이다. 특히 100% 손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거쳐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8년에는 와인 전문지 <Wine Spectator>이 선정한 전 세계 100대 와인 1위에 등극해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숙성 후 병입 전 필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아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와인으로 허브 향과 과일 향, 벨벳처럼 부드러운 타닌이 입안에 감돈다. 초콜릿 디저트를 먹을 때 함께 마시면 좋다.

3 운두라가 파운더스 컬렉션 카베르네 소비뇽 Undurraga Founder's Collection Cabernet Sauvignon

For 중후한,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열정을 지닌 운두라가는 1885년 설립한 유서 깊은 와인 생산자이자 칠레 와인 산업의 선구자다. 설립자 프란치스코 운두라가는 유럽을 유학하며 프랑스, 독일의 포도나무와 기술을 칠레에 들여온 장본인. 프랑스인 와인 양조 기술자를 영입하는 등 당시만 해도 무명에 가까운 칠레 와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1903년에는 마침내 칠레 와인 산업 역사상 최초로 북미에 와인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파운더스 컬렉션은 프란치스코 운두라가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만든 브랜드. 부드러운 타닌의 맛, 중후한 여운이 인상적이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설립자 정신을 담은 이 와인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이미 사업에 성공한 이를 위한 선물로 적합하다.

4 디 마르티노 파밀리아 카베르네 소비뇽 De Martino Familia Cabernet Sauvignon

For 가족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기쁜 일을 나누고 싶은 가족 같은 이에게 '파밀리아'는 스페인어로 '가족'을 뜻한다. 디 마르티노가 3대째 가문 대대로 경영해 성공을 거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탄생한 와인. 가족과 기쁜 일을 나눌 일이 있다면 의미를 담아 선물해보자. 디 마르티노는 2010년 IWSC 선정 칠레 최고의 카르메네르 생산자로 명성을 드높였다. 블랙베리, 카시스, 체리 등 과일 향과 제비꽃 향 등이

스모키하며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2년간 숙성해 오크에서 배어나는 풍미가 우아한 여운을 남긴다. 쇠고기 스테이크, 양고기, 오리고기 등 풍미가 진한 육류 요리나 치즈와 궁합이 잘 맞으며, 파티나 특별한 식사 자리에 제격이다.

5 우마니 론키 쿠마로 리세르바, 코네로 DOC Umani Ronchi Cumaro Riserva, Conero DOC

For 최고의 것만을 추구하는 까다로운 취향의 쿠마로는 연간 6만 병 한정 생산하는 와인이다. 이탈리아 동부 와인 산지 마르케를 대표하는 와이너리 우마니 론키에서 생산한다. 쿠마로는 이곳의 간판급 와인. 우마니 론키는 고품질 이탈리아 와인협회가 조직한 시음단 '그란디 마르키'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란디 마르키는 높은 품질과 품격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가는 생산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쿠마로는 로소 코네로 지역의 코네로 산에 자생하는 야생 딸기류 열매의 옛 라틴어를 의미하는 만큼 야생 딸기의 향이 매력적이다. 입안을 짝 찢는 촉촉한 타닌 역시 포인트. 여기에 이탈리아 특유의 독특한 산미가 더해져 완벽한 맛을 선사한다.

6 팰리셔 에스테이트 피노 누아 Palliser Estste Pinot noir

For 개척 정신이 뛰어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팰리셔 에스테이트는 세계적인 명성의 뉴질랜드 와인 생산자다. 와이너리는

뉴질랜드 북섬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다. 프리미엄급 와인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곳을 찾아 수차례의 실험과 과학적 연구 끝에 선택했기 때문. 길고 뜨거운 여름과 혹독하고 추운 겨울이 번갈아 지나가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이 특징인 이곳은 소비뇽 블랑이나 샤르도네, 피노 누아, 리슬링, 피노 그리 등 서늘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의 품질을 높이는 데 완벽한 환경을 갖추었다. 이 중 피노 누아는 잘 익은 레드베리와 블랙베리, 자두 등 풍성한 과일 아로마와 약간의 오크 향, 숙성되면서 배어나는 가죽 향 등이 가미되어 있다.

7 클라우디오 알라리오 코스타 피오레 돌체토 달바 DOC Claudio Alario Costa Fiore Dolcetto d'Alba DOC For 패기 넘치며 빛나는 젊음의

이탈리아 디아노 달바 지역을 대표하는 와인 생산자. 클라우디오 알라리오의 농축미 있는 돌체토와 바롤로로 유명하다. 1988년 설립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로버트 파커 등 해외 비평가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성장했다. 이곳의 와인을 대표하는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와인 라벨은 각각의 와인 맛과 향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미술 작품이다. 코스타 피오레는 50년 이상 수령의 돌체토 고목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 농축미가 뛰어나며 보디감이 좋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큰 명성을 얻은 제품. 로버트 파커는 코스타 피오레에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며 극찬했다.



차 안을 가득 채운 그루브에 중독되어도 좋다. 애시드 재즈 하면 떠오르는, 혹은 꼭 들어봐야 할 명반을 모았다.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민성원 Cooperation Sony Music(02-530-0900), Fargo Music(02-337-1019), Universal Music(02-2106-2000)

My First Acid Jazz

1 <The Return of the Space Cowboy>

영국 애시드 재즈 신의 상징 자미로콰이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최근 발매한 앨범 <The Return of the Space Cowboy>. 리마스터링한 곡과 싱글 앨범에 수록된 비-사이드 곡을 한데 모았다. 펑키하고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드라이빙 뮤직이다. 'Space Cowboy', 'Mr. Moon', 'Light Years' 외 미공개 트랙까지 수록했다. Jamiroquai. 2CD 21곡.

Sony Music.

2 <Doublehearted>

노르웨이 출신 애시드 밴드 디사운드. <Doublehearted>는 디사운드의 네 번째 앨범이다. 디사운드 특유의 드럼과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세련된 리듬감은 여전하지만, 더 강해진 팝 감각의 넘버로 채웠다. 특히 보컬리스트 시모네의 냉소적인 음색이 매력적이다. D'sound. 1CD 16곡.

Fargo Music.

3 <The Best of Incognito>

1981년 <Jazz Fuck>을 통해 화려하게 데뷔한 인코그니토는 브랜드 뉴 헤비스, 자미로콰이와 함께 애시드 재즈를 세계적인 장르로 부상시킨 그룹이다. 이들의 공식 첫 베스트 앨범. Incognito. 1CD 13곡.

Universal Music.

4 <Buckshot Lefonque>

1980년대 메인스트림 재즈를 이끈 색소폰 연주자 브랜포드 마샬리스와 DJ 프리미어의 재즈&힙합 프로젝트, 벅샷 르퐁크의 첫 번째 앨범 <Buckshot Lefonque>. 1994년 발매한 이 앨범은 펑키한 플로와 타이트한 리듬감, 이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악기의 솔로 파트가 요즘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감각적 리듬에 꼭 빠져들게 한다. 몇 년 전 국내 힙합그룹 2ne1의 멤버 씨엘이 리메이크해 유명해진 'Another Day'도 벅샷 르퐁크의 곡이다. Buckshot Lefonque. 1CD 15곡.

Sony Music.

Ford's Special Collection

포드만의 세련된 감각이 묻어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Editor 강미라

 1	 2
 3	 4
 5	 6
 7	 8

1 Cuff Links

드레스 셔츠에 클래식함을 더해 줄 커프스 링크. 블랙 컬러의 표면 위에 실버 컬러의 머스탱 50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져 있다. 14.95달러. www.fordcollection.com

2 1:25 '49 Mercury Custom Coupe Car Model KIT

범퍼 2개, 그릴 3개, 후드 2개, 펜더 스커트 2개 등이 포함되어 자신의 취향대로 디자인을 개조할 수 있는 머큐리 스페셜 에디션 키트. 21.99달러. <http://merchandise.ford.com>

3 Mustang Eau De Toilette 100 ml Spray

인도가 원산지인 카다몬 등에서 추출한 향이 독특하면서도 강렬한 머스탱 오드 트왈렛. 여기에 우드 향과 머스크 향 등이 남성에게 관능미를 선사한다. 36달러. <http://merchandise.ford.com>

4 Limited Edition Shinola Watch

머스탱 5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1000개만 제작되었다.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등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시계. 수심 100m까지 방수 기능을 지원한다. 700달러. www.fordcollection.com

5 Vintage Pint Glass Gift Bucket

메탈 버킷과 타월, 유리잔 네 개와 컵받침 등으로 구성된 선물용 패키지. 레트로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이템으로 나들이나 캠핑 때 유용하다. 34.95달러. www.fordcollection.com

6 Roll-Up Picnic Blanket

익스플로러 로고가 박힌 피크닉 블랭킷 세트. 양털 담요와 이를 말아 넣을 수 있는 나일론 재질의 가방이 포함되어 있다. 22.95달러. www.fordcollection.com

7 Mustang Fifty Years Origin Core 365 Polo

수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향균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머스탱 50주년 기념 폴로 셔츠. 착용감까지 뛰어나다. 27.95달러. <http://merchandise.ford.com>

8 Focus Cable Grabber

전원 케이블과 USB 선 등을 정리해주는 케이블 타이. 포커스와 포드의 로고가 담겨 있어 더 특별하다. 4.95달러. www.fordcollection.com

킹크랩, 자연산 송이, 푸아그라 등 가을 제철 재료로 만든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충주방장 안드레아스 크램플의 네 가지 요리는 가히 예술의 경지라 해도 될 만큼 환상적이다. 그의 남다른 철학이 담긴 요리의 세계로 초대한다.

Editor 이희진 Photographer 안영준 Cooperation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02-6282-6262, www.jw-marriott.co.kr)

Seasonal Gourmet



SURF&TURF KING CRAB CLAW&PAN FRIED FOIE GRAS SAUTÉD MUSHROOMS, PUFF PASTRY, LOBSTER BISQUE&PORT WINE SHALLOTS : 킹크랩 집게살과 구운 푸아그라(프랑스산)

바다와 육지의 가장 좋은 재료라는 콘셉트로 킹크랩과 푸아그라를 접목한 요리. 버섯과 시금치를 깐 뒤 위에 킹크랩과 푸아그라를 얹는다. 그런 다음 소스를 킹크랩으로 만든 비스쿠와 폼을 내어 바르고, 발사믹을 물결처럼 접시 위에 뿌린 뒤 위에 허브 잎을 얹는다. 발사믹 향과 허브의 조화가 훌륭하며, 설롯 피클이 풍미를 돋운다.



PINE MUSHROOM RAGOUT SEMMELKNOEDEL, CRISPY PORK : 자연산 송이와 라구, 잼멜크노델 포크 크리스피

자연산 송이와 새송이버섯, 양송이 등 다양한 버섯을 믹스해 잘게 만든다. 라구는 스투처럼 끓여 볶은 뒤 크림을 넣고 끓인 것을 소스로 만든 것이다. 독일식 잼멜크노델(덤블링)은 남은 빵을 우유와 버터, 달걀을 넣어 만든 것. 돼지고기 목살을 삶아 얇게 자른 뒤 바삭하게 튀긴 것을 맨 위에 얹었다.



KING PRAWN SALAD, TUNA ROLL WHITE TOMATO FOAM, EDAMI AND AUTUMN MUSHROOM SALAD :
킹 프론 샐러드와 튜나 롤, 캐비아
 참치를 얇게 포며 물결처럼 모양을 낸다. 밑에는 감자 샐러드를 깔고, 위에 프론(대하) 샐러드를 올린 뒤 아보카도를 얹는다. 새송이버섯과 에다미 콩을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춧가루로만 간해 곁들여 먹는다. 참치와 잘 어울리는 상큼한 토마토 폼 소스와 캐비아를 곁들이면 환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안드레아스 크램플(Andreas Krampf)

1973년 독일 출생. 1993년 독일의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회핑엔(Höfingen)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하인츠 벙클러(Residenz Heinz Winkler)를 거쳐 이스라엘,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자메이카, 홍콩, 방콕, 인도, 발리, 두바이, 베이징 등 19년간 전 세계의 호텔을 돌며 경력을 쌓았다. 특히 셰라톤 · 인터컨티넨탈 · 그랜드 하얏트 · 리츠칼튼 · JW 메리어트 등 최상급 인터내셔널 호텔을 돌며 각국의 식문화에 대한 식견을 넓혔다. 1999년부터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에 합류, 2010년 리츠칼튼 베이징과 JW 메리어트 베이징의 총주방장을 동시에 겸임했으며, 2011년 10월부터는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총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다.

Q 이 요리들을 추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A 오늘 준비한 네 가지 메뉴 모두 가을과 잘 어울리는 요리다.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메뉴들이다. 특히 첫 번째로 선보인 'Surf&Turf Crab Claw&Pan Fried Foie Gras'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디시다.

Q 처음 요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A 열두 살 때로 기억한다. 작은 일들을 조금씩 어머니에게 배웠는데, 예를 들면 감자 껍질을 벗겨놓거나 오븐에 구울 치킨을 넣어놓고 준비해두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바로 요리하시곤 했다. 그때부터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Q 당신의 요리 철학(요리 스타일)은?

A 여러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요리 철학을 옆에서 배우고 익혔다. 또 14개국에서 일하며 나라마다 특징적인 요리 스타일을 습득한 뒤 마음에 든 것들을 통합해 내 요리에 반영했다. 아직까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스타일 요리가 메인이지만, 동양적인 요소도 넣으려 노력한다.

Q 요리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주로 얻나?

A 항상 다르다. 한밤중에 갑자기 메뉴가 떠오를 때도 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조리법을 쿠킹 쇼에서 알게 되거나 책, 잡지, 온라인 서핑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영감을 얻는다. 계절에 따라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Q 당신에게 '요리'는 어떤 의미인가?

A 요리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재미있고 즐겁다. 하나의 메뉴를 완성하고, 나의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 마켓에 가서 신선한 식자재 허브, 생선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Q 셰프라는 직업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반대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A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등 휴일에 친구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 셰프에겐 더 바쁜 시간이나까. 반대로 보람을 느낄 때는 셰프로서 세계 곳곳의 최고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세계 최고의 셰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부시 대통령, 윌 스미스, 존 트라볼타, 비운세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들에게 내가 만든 요리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

Q 앞으로 요리사로서 구체적인 계획과 이루고 싶은 소망을 듣고 싶다.

A 소망은 두 가지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시아퍼시픽(Asia Pacific)에 속한 300여 개 메리어트 호텔을 총괄하는 컬러너리 디렉터가 되고 싶다. 현재는 직접 셰프들과 함께 메뉴를 만들고 요리 과정을 진행하지만, 컬러너리 디렉터로 일하게 되면 각 호텔의 색깔과 분위기에 맞게 콘셉트를 구성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TRUFFELD CHICKEN AND ASPARAGUS SALAD GRILLED PINEAPPLE, AVOCADO&COCONUT :
구운 파인애플과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닭고기 샐러드
 아보카도를 바닥에 그림처럼 깔고, 그릴에 구운 파인애플에 닭고기 샐러드를 만들어 롤처럼 만든다. 식감이 좋고, 아보카도 소스와 곁들이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데치지 않은 프레시한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버무린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



도산공원 일대에서 즐기는 하루
Great Space

플래그십 스토어, 멀티숍, 레스토랑과 카페, 갤러리에 이르기까지 떠오르는 핫
스팟이 곳곳에 숨은 도산공원. 얼마 전에는 포드의 강남 신사 전시장까지 대대적인
리뉴얼 오픈을 하며 도산공원의 트렌드를 업그레이드했다.
〈My Ford〉의 도산공원 핫 플레이스 탐방기.
Editor 강미라 Photographer 민성원



1 서울에서 만나는 글로벌 갤러리 그룹
오페라갤러리

‘오페라갤러리’는 파리, 뉴욕, 런던, 베니스, 두바이, 제네바 등 10개
도시에서 11개의 회관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갤러리 그룹으로 2007년
서울에 문을 열었다. 원래 청담동에 있던 것을 지난해 10월, 개관
5주년을 맞아 도산대로로 확장 이전했다. 오페라갤러리는 속이
흰하늘 보이는 유리로 지어 이곳을 지나는 누구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 세계 각국의 오페라갤러리끼리 작품을 로테이션하는
시스템 덕분에 해외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은 물론, 대형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있을 법한 19세기 거장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컬렉터를 위한 프라이빗 공간 ‘블랙룸’도 운영한다. 현재의
갤러리 소장품을 만날 수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요즘 가장 핫한
사진가 데이비드 마크의 개인전이 열린다. 전시 기간에는 작가가
내한할 예정이다. 1년에 총 5회의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으니
오페라갤러리의 행보를 주목하자.
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2 문의 02-3446-0070



2 셰프의 진심이 담긴 프렌치 만찬
라미띠에

‘라미띠에’는 국내 부티크 레스토랑의 시초로 1999년 문을 열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풀코스 프렌치 요리를 즐길 수 있는데, 셰프가
직접 고객과 대면하고 섬세하게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장명식 셰프는 호텔 요리사로 11년간 근무하다 오너 셰프로써 자신만의
요리 철학을 펼치고자 이곳을 운영하게 됐다. 코스당 10여 가지의
요리를 내놓는데 다양한 재료와 맛을 담아내되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는다. 두 달에 한 번 제철 재료를 이용해 메뉴를 리뉴얼하지만
푸아그라와 스테이크 종류는 계속 선보인다. 한 곳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장명식 셰프만의 고집에서 엿볼 수 있다. 많은
재료를 한 접시에 담지 않을 것, 요리 앞에서 겸손할 것, 셰프가 주방을
비우지 않을 것, 화려한 기교와 트렌드에 연연하지 않되 틀에 박힌
요리를 경계할 것!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6-15 문의 02-546-9621



3 명품을 넘어선 아트 북 셀렉션
애슬린라운지

프랑스 아트 북 출판사 애슬린의 아시아 최초 라운지 역시
도산공원에 있다. ‘애슬린’은 샤넬, 디올, 까르띠에 등 수많은
명품 브랜드의 브랜드 북뿐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북,
아티스트의 아트 북을 제작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애슬린에서
브랜드 북을 출판하지 않으면 명품 대열에 끼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 루이 비통의 시티 가이드 컬렉션, 시계
기술의 정수를 담은 까르띠에 전시 기념 북을 비롯한 아트 북
셀렉션을 둘러보는 것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기에 다양한
브런치와 점심 메뉴, 샴페인 등을 즐길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며,
작가들의 예술 작품 전시 공간도 마련돼 있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36 문의 02-517-0316



4 갖고 싶은 개인의 취향
샌프란시스코 마켓

‘샌프란시스코 마켓’은 ‘이탈리언의 시각에서 바라본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2005년 문을 열었다.
이탈리언 클래식과 아메리칸 클래식을 넘나드는 아이템은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으며, 새롭고 가치 있는 데다 예쁘기까지
하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남성복 디자이너로 활동한 한태민
대표가 남다른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브랜드를 바이하고
있으며 East Harbour Surplus라는 자체 컬렉션도 보유하고 있다.
올가을 포드 오너들을 위한 스타일링을 부탁하니 엔지니어드
가면츠의 웨스턴 셔츠, PT01의 베이지 컬러 면바지, 알베르토
마르티넨기의 트래블 백을 추천했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7-18 문의 02-542-3156



5 특별한 남자의 그루밍 플레이스
보보리스

뷰티 살롱은 보통 연예인, 기업 CEO들이나 찾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남자라면 이러한 공간에 대한 부담이 클 터. 원스톱 그루밍을 최상의
서비스로 즐길 수 있는 ‘보보리스’는 총 네 개 층에서 프라이빗한 뷰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한 층을 ‘man’s floor’라 이름 지은 만큼
남자들도 편안하게 관리받을 수 있고, 실제로 남성 고객들이 다른 뷰티
살롱에 비해 많은 편. 시술할 때마다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고 한번 앉은
자리에서 클렌징 및 샴푸, 스타일링, 드라이를 비롯한 마무리가 가능하다.
특히 퍼스널 케어를 받으며 5종의 디저트가 포함된 식음료 서비스를 살롱
의자에 앉아 즐길 수 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인터뷰, 특별한
기념일을 앞둔 남성이라면 전문가의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메이크업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은 딥 클렌징과 마스크
팩, 눈썹 정리, 메이크업으로 깔끔한 인상을 완성해준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23 문의 02-549-0988



현대인의 로망

Enjoy Yacht

바다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요트는 이제 더 이상 특정인만이 누리는 레저가 아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일반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레포츠로 자리매김했다. 각광받는 레포츠로 떠오른 요트를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다.

Editor 이희진 Cooperation 제주 그랑블루620, 700요트클럽

세일링 요트는 크게 덩기(Dinghy)와 크루저(Cruiser)로 나뉜다. 흔히 1인용 '요트'를 덩기라고 하지만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고 주로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1~3인용의 소형 세일링 요트를 말한다. 덩기는 오직 바람의 힘만으로 움직이기에 바다에서 타지만 연안, 강, 호수에서 주로 이용한다. '크루저'는 연안에서 멀리 나갈 수 있는 요트로 선실이 있고, 입출항과 비상시 쓸 수 있는 소형 보조 엔진을 장착했다. 크루저는 거친 파도와 강풍에서도 적응해가며 항해해야 하므로 끈질긴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또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자연현상에 적절하게,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해양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각자의 취향에 맞는 요트를 선택해 즐겨보자.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제주 그랑블루620

제주 서귀포시 대포항에서 만날 수 있는 럭셔리 크루즈 요트 '그랑블루620'은 국내 기술력으로 완성한 62피트 카타마란(쌍동형) 크루즈 요트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마치 최고급 자동차인 페라리처럼 전 과정을 손으로 만든 알루미늄 세일링 요트인 그랑블루620의 가장 큰 특징은 동력과 무동력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요트의 매력을 한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넓고 럭셔리한 내부 설비와 탁 트인 갑판은 보너스. 카타마란형이라 선내가 9.5m나 되기에 와인 바, 샤워실, 침실, 노래방, 주방 시설 등을 갖춰 럭셔리 파티를 할 수 있는 바다 위 초특급 호텔을 연상시킨다. 에메랄드빛으로 빛나는 제주의 망망대해에서 이처럼 럭셔리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관광객이 제주의 매력을 오롯이 가슴에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랑블루620이 동자를 트 서귀포시 대포항은 만(灣) 형태로 이루어진 작은 포구로 오랫동안 제주 해녀들이 삶을 일구는 터전이었다. 입지 조건이 우수한 만큼 정박장을 조성하면서 어미의 품처럼 포근한 데다 기암괴석이 만들어내는 비경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그런 만큼 제주 분위기를 온전히 누리면서 럭셔리한 요트의 호사스러움을 충분히 맛볼 수 있다. 투어 역시 아득히 한라산의 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주 바다의 절경으로 꼽히는 주상절리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로 진행된다.

문의 064-739-7776, www.grandbleu yacht.co.kr

700요트클럽

2006년 8월에 설립한 700요트클럽은 1년이나 3년 회원제로 회원들에게 세일링 레슨, 클럽 시설 이용, 국내외 대회 출전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비회원에게도 클럽을 오픈, 일반인도 별다른 연회비 없이 700요트클럽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트 체험 프로그램, 요트에서의 프리포즈 행사, 회사 상품 발표회, 회사 임직원의 팀빌딩을 위한 요트 레이스, 선셋 바비큐와 달밤 세일링 등이 인기 프로그램이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는 주말 크루즈 요트 체험 프로그램이다. 토·일요일 40분 동안 요트 체험을 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으로 한 사람당 2만 원에 침실 2개, 샤워실, 주방, 살롱을 갖춘 크루즈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다. 요트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요트 문화를 전파하고 또 이를 정착시키고자 마련한 것. 요트클럽은 단순히 배만 타고 빌려주는 곳이 아니다. 영화에서처럼 새로운 사교문화, 레저문화가 꽃피는 곳이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신세대의 새로운 레저·사교문화가 이미 요트클럽에서 행해지고 있다.

문의 02-376-5616, www.700yachtclub.com

tip 요트 어디서 배우나?

덩기 요트 배우기

부산요트협회(051-747-1768)에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1~2인용 세일링 요트인 덩기와 4~6인용 세일링 요트인 크루저를 배울 수 있다. 오전 9시 30부터 오후 5시 30까지 하루 8시간씩 2일에 걸쳐 교육 일정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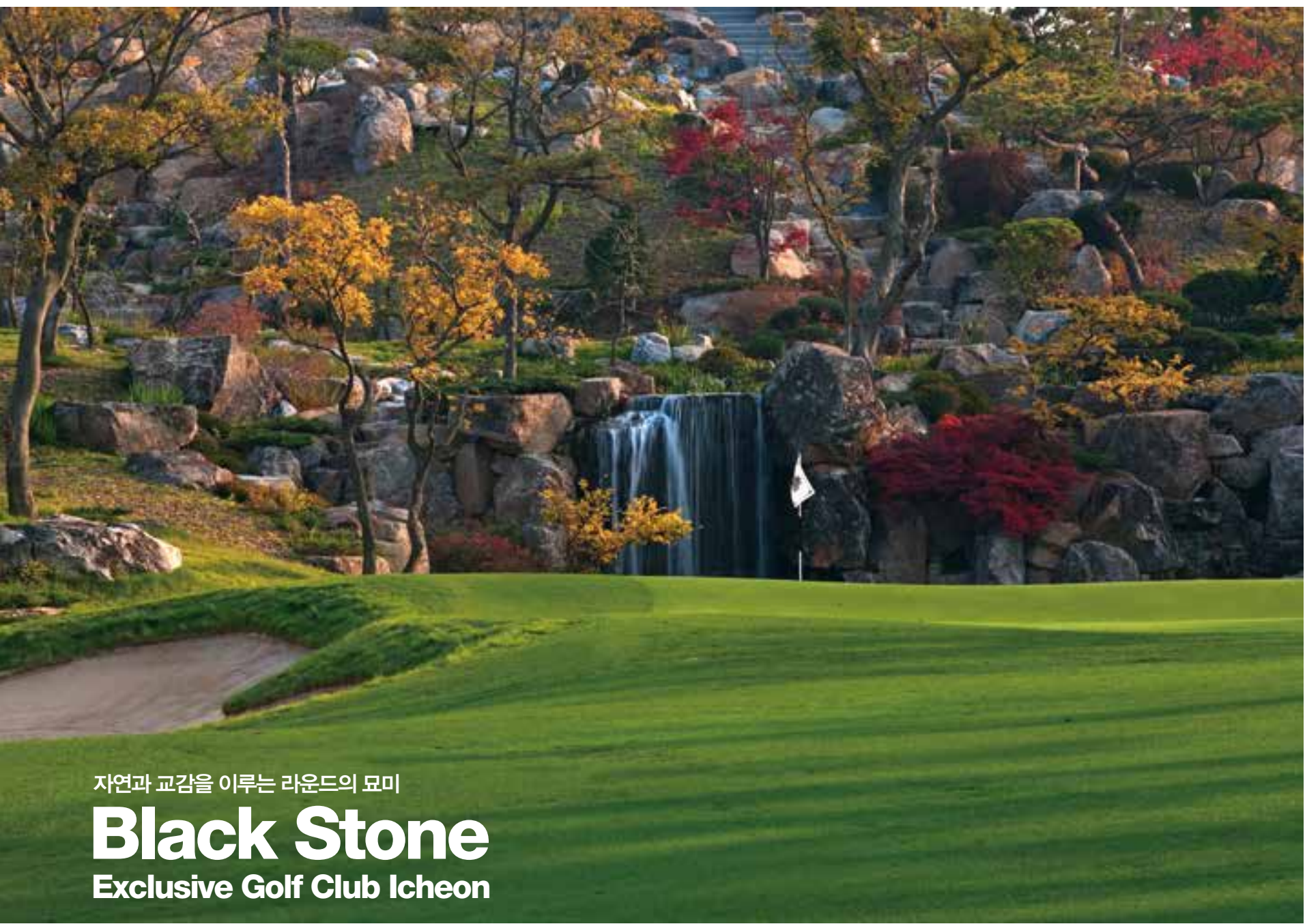
덩기 요트 체험 교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강바람 타고~' 요트 체험 교실이 6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화명동 낙동강화명지구생태체육공원에서 열린다.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이며, 초등학교 이상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다. 참가 신청은 대한요트체험교실 홈페이지(http://koreayachtschool.org)에서 예약 접수하고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면허 레슨

필기시험 : 상암동 난지지구 안에 있는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매일 시험을 볼 수 있다(주말·공휴일 제외).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으로 요트 면허와 조종 면허 두 가지가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1년 안에 실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매달 셋째 주나 넷째 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700요트클럽 면허 레슨** : 실기시험 바로 전 주말 이틀에 걸쳐 면허를 위한 레슨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며 이틀 동안 면허를 위한 코스를 익힌다. 현재까지 합격률은 90%이며, 불을 때까지 레슨을 받을 수 있다.





명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바느질처럼 어느 한 곳 소홀함 없는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
'존재하는 자연을 살아 숨 쉬는 자연으로'라는 모티브의 이곳은 자연을 배경으로
골프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골프클럽 자체가 자연에 흡수되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 2012년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링컨에서 개최한
'링컨 고객 초청 골프 대회'가 열렸던 골프클럽을 둘러보았다.

Editor 이희진 Cooperation 블랙스톤 이천 CC(031-643-2000, www.blackstoneresort.com)



자연친화적인 명품 골프 코스

세계 유수의 골프클럽을 설계한 골프클럽 설계 전문 회사 'Jmp Golf Design Group'의 브라이언 코스텔로(Brian Costello)가 블랙스톤 골프클럽 제주에 이어 디자인한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은 명품 골프 코스로 탄생했다. 총 42만 평 대지에 27홀로 구성했으며, 페어웨이와 러프는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보존하도록 설계했다. 1만9549m² (약 5913평)의 그린 면적, 평균 원그린 면적 724m²(약 219평), 평균 표고차 88m, 평균 경사도 13.2°의 완만한 지형은 배려와 조화라는 이름으로 맛있는 정원 같은 골프장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숲을 만들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처음부터 이곳에 자리 잡아온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데, 150년 된 상수리나무의 보존은 이곳 터줏대감에 대한 예의를 보여준다. 제주도에서 엄선한 400그루의 팽나무를 심었고, 500년 된 향나무는 개인 농장에서 옮겨온 것이다. 골프장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유기체다. 흙과 잔디, 나무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숨 쉬는 생명이다. 이천은 기본에 충실한 흙다짐으로 터를 마련하고 화학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유기질 비료 4063톤을 투입했다. 배수와 급수 시설 또한 완벽하다. PGA 투어에서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비가 그친 뒤 20분 이내에 경기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곳은 일반 골프장에서는 820개 정도 설치하는 맨홀을 1180개 설치했으며, 스프링클러 1875개를 설치해 최적의 코스 상태를 유지한다. 또 가장 고민한 부분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며 코스로 재탄생시키느냐'였다. 골프는 자연과 교감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스포츠이기 때문. 오너는 직접 영월, 원주, 문경, 상주, 안성, 등 전국 8도의 자연석을 선별했고, 13개의 호수를 배치해 코스를 완성했다. 여성의 섬세함과 남성의 호쾌한 매력을 모두 갖춘 '북코스'는 넓으면서 긴 페어웨이 곳곳에 벙커나 해저드가 전략적이면서도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다. 544m로 가장 긴 1번 홀은 계곡으로 빨려드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되는데, 이어지는 각 홀은 산과 계곡으로 연결되며 드라마틱한 광경을 선사한다.



‘서코스’는 전망이 탁 트여 넓고 시원한 시야를 선사한다.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에서 가장 긴 서코스는 이름 그대로 골프클럽을 양분하는 서쪽 사면에 위치한다. 아름다운 숲을 향해 굽이쳐 흐르면서 시작되는 서코스에서의 티샷은 대담한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라운드 중반 모습을 드러내며 플레이어의 시선을 압도하는 큰 호수는 인접한 홀을 지나는 동안 수차례의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며, 산 정상을 향해 펼쳐진 8번 홀과 9번 홀에서는 감동마저 느끼게 된다.

아기자기한 숲과 야생화가 어우러져 동화 속 마을을 연상시키며, 여성스럽고 섬세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코스’. 북·서코스에 비해 거리는 조금 짧지만 곳곳에 숨은 장애물을 피해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어 골퍼의 도전과 흥미를 자극하는 코스다.

코스 전반부에는 결코 방심할 수 없게 하는 굴곡이

이어지고 기묘한 바위에 둘러싸인 5번, 6번 홀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특히 마지막 7번, 8번, 9번 홀은 각각 PAR3, PAR4, PAR5로 구성되어 전략을 짜고 테크닉을 테스트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블랙스톤을 더욱 빛내는 북코스 4번 홀

2011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유러피언 투어(EPGA) 골프 대회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개최하며 수준급 시설과 코스 변별력을 갖추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블랙스톤 골프클럽 이천.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의 매력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코스는 당장 라운드를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중 블랙스톤 골프클럽의 대표적인 북코스 4번 홀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시원한 폭포 소리를 들으며 내려다보는 큰 호수와 초승달 모양

페어웨이, 장애물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든 요소와 조화를 이룬 벙커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에 심취해 자칫 냉정함을 잃기 쉬운 곳이 바로 4번 홀이다. 실제로 2011년 발렌타인 챔피언십 당시 선두와 3타 차, 공동 5위로 4라운드를 출발한 리 웨스트우드가 침착한 플레이로 의미 있는 버디를 잡아내며 역전승을 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의 홀 공략법은 페어웨이가 양쪽 능선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기에 지형 특성상 시간대별로 곡풍(谷風)과 산풍(山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특징. 전체적으로 안도감을 주는 모습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절경의 아름다운 요소가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정교한 샷으로 고도가 높고 워터해저드에서 먼 페어웨이 오른쪽을 공략한다면 절경이 선사하는 감동 아래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미국적 분위기의 클럽하우스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도 미국적 느낌을 풍기는 웅장한 클럽하우스는 과거의 세련된 매너와 전통적 귀족 정신이 느껴지는 클래식한 공간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골프클럽은 골프를 치면서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곳이기에 차분한 컬러의 마감재를 사용해 편안하면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높은 천장의 웅장한 크로스 볼트(Cross Vault)와 세련되고 정교한 엔타시스 기둥의 반복을 통해 공간의 깊이를 더했다. 로비 공간과 동일선상의 축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일상에서 탈피하고 자연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골퍼의 심리가 가장 잘 반영된 내부 공간으로 천장을 통창으로 설계해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이 레스토랑 전체를 환하게 비춘다. 천장을 향해 뻗은 중앙의 높고 커다란 나무와 들꽃은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또 클럽하우스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블랙스톤 갤러리’는 2009년부터 현대미술의 표본인 다수의 작품과 글로벌 작가들의 유명 작품뿐 아니라 기능성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해 그들에게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Ford News

Editor 강미라



포드 · 링컨 전시장 / 서비스센터 확장 및 이전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인 선인자동차는 포드 · 링컨 강남 신사 전시장을 확장 · 이전하며 본격적인 판매 및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사전시장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전용 건물에 자리 잡았다. 총면적은 2475㎡(약 750평)로 자동차 12대 이상 전시할 수 있다. 수입차 업체가 준비한 도산공원 사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 수입차 전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전시 · 판매 · 서비스 · 정비 공정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3S(Sales, Service, Spare Parts) 형태를 갖췄다. 전시 공간뿐 아니라 정비 시설도 두 배로 늘려 하루 20대 이상 정비할 수 있다.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는 “2013년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한국 시장 내 포드의 공격적 투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강조하며, “강남 신사 지역에서 최고의 편의시설 및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끊임없이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롭게 선정된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 해인자동차는 포드 · 링컨 구리, 의정부 전시장을 신규 오픈했으며 9월 중순 미아 전시장을 오픈한다. 이로 인해 수입차 신흥 시장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울 강북 지역 및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 북동부를 아우르는 판매망을 형성하게 됐다. 특히 의정부 전시장은 지상 2층 규모 단독 전시장으로 총 8대의 포드 및 링컨 모델이 전시되며 3S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플라리스오토는 올해 용산과 은평 지역까지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역대 최고 월별 판매 기록 경신

포드코리아의 자동차 판매량이 7월 한 달 동안 688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달성한 역대 최고 월별 판매량인 657대를 경신한 실적이다. 전년 동월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 대비로는 약 19%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총 3980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 급증했다. 익스플로러(214대), 토러스(183대) 등 전통적인 포드 스테디셀러의 꾸준한 판매 덕분에 분석된다. 또 링컨의 대형 프리미엄 세단 MKS(98대)의 약진이 힘을 보탰다.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는 “단순한 수치의 의미를 넘어 국내 고객들의 포드 · 링컨 브랜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입증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 포드, Go 캘리포니아!’ 이벤트 개최

포드코리아의 ‘Go 포드, Go 캘리포니아!(Go Ford, Go California!)’ 이벤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브랜드 USA(discoveramerica.com)’와 제휴해 진행한 이번 이벤트는 야구에 관심이 높은 한국 소비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 8월 31일까지 전국 24개 포드 전시장 방문 고객 및 전 차종 출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467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1등 17명에게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속한 LA다저스 경기 관람 일정이 포함된 5박 7일 캘리포니아 여행권과 LA 다저스 공식 유니폼을 증정하는 것. 2등부터 5등에게는 호텔 식사권, 클러브 캐치볼 세트, 와인, LA다저스 모자, 야구 예매권 등을 증정한다.

SBS 드라마 〈결혼의 여신〉등 협찬

SBS 주말 드라마 〈결혼의 여신〉에 포드 · 링컨이 모습을 드러냈다. 〈결혼의 여신〉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지닌 커플들이 사랑과 갈등을 통해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되돌아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에 링컨 MKZ, 올 뉴 퓨전, 익스플로러, 포커스 디젤, 머스탱 등을 지원, 각 배역의 캐릭터를 살려주는 동시에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라디오 작가 역할을 맡은 주인공 송지혜(남상미 분)는 ‘포커스 디젤’, 터프한 성격의 건축설계사 김현우(이상우 분)는 SUV ‘익스플로러’, 엘리트 검사인 강태욱(김지훈 분)은 중형 세단 ‘링컨 MKZ’를 탄다. 또 재벌가 부인인 홍혜정(이태란 분)은 ‘올 뉴 퓨전’, 클라라가 맡은 신시아 정은 ‘머스탱’을 운전한다.

포드코리아 마케팅 관계자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흥미롭게 다룬 드라마의 각 캐릭터를 통해 시청자에게 포드 · 링컨의 다양한 차종과 차별화된 기능,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 5월에 방영을 시작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에는 대기업 일가의 고명딸이자 지적이면서도 톡톡 튀는 매력의 주인공 오로라(전소민 분)의 차량으로 포드 퓨전이 등장한다. 8월 31일부터 방송되는 KBS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에서도 포드를 만날 수 있다.



머스탱 50주년 기념 시리즈 영상 제작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카 중 하나인 머스탱이 2014년 출시 50주년을 맞는다. 포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머스탱 카운트다운(Mustang Contdown)’이라는 영상을 제작해 매주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머스탱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와 역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과정 등을 담아냈다. 이 영상은 전용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2014년 4월 17일까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미국 포드자동차의 마케팅 매니저는 “머스탱 카운트다운 시리즈는 머스탱의 유산을 기리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세계 각국에서 머스탱의 50주년을 축하하는 만큼, 머스탱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Ford Lineup

*제원은 2013년 7월 기준



2013 FOCUS

	디젤
엔진형식	2.0 TDCi
트랜스 미션	파워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더블클러치)
배기량(CC)	1,997
구동방식	FWD
승차 정원(명)	5
공차 중량(kg)	1,535
복합 연비(km/L)	17
도심 연비(km/L)	15.2
고속도로 연비(km/L)	20.1
CO2(g/km)	113
등급	1

2014 TAURUS

	2.0 SEL / 2.0 Limited	3.5 SEL / 3.5 Limited	SHO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Ti-VCT 엔진	V6 3.5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 미션	선택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선택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선택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3,496
구동 방식	FWD	FWD	AWD
승차 정원(명)	5	5	5
공차 중량(kg)	1,890	1,900	2,020
복합 연비(km/L)	10.4	9.2	8.2
도심 연비(km/L)	8.8	7.9	6.9
고속도로 연비(km/L)	13.3	11.7	10.5
CO2(g/km)	171	193	220
등급	4	5	5



2014 MUSTANG

	2.0 FWD	
엔진 형식	3.7L Ti-Vct V6 엔진	
트랜스 미션	선택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3,726	
구동 방식	RWD	
승차 정원(명)	4	
공차 중량(kg)	1,625 (Coupe)	1,680 (Convertible)
복합 연비(km/L)	9.3 (Coupe)	8.9 (Convertible)
도심 연비(km/L)	8.0 (Coupe)	7.5 (Convertible)
고속도로 연비(km/L)	11.6 (Coupe)	11.6 (Convertible)
CO2(g/km)	191 (Coupe)	200 (Convertible)
등급	5	



2013 ESCAPE

	2.0 FWD	1.6 AWD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1.6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 미션	선택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선택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1,596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A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5	5
공차 중량(kg)	1,785	1,740
복합 연비(km/L)	9.2	10.1
도심 연비(km/L)	8.11	8.9
고속도로 연비(km/L)	11.2	12.3
CO2(g/km)	192	174
등급	5	4

2013 FUSION

	1.6 Ecoboost	2.0 Ecoboost	Hybrid
엔진 형식	직렬4기통 1.6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직렬4기통 2.0L iVCT 앳기슨 사이클 엔진, 영구자석 교류(AC) 동기식 전기모터, 리튬이온 배터리, 제동에너지 재생 시스템
트랜스 미션	선택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선택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전자제어식 무단변속기(eCVT)
배기량(CC)	1,596	1,999	1,999
구동 방식	FWD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5
공차 중량(kg)	1,615	1,645	1,720
복합 연비(km/L)	10.8	10.3	18.9
도심 연비(km/L)	9.1	8.9	19.8
고속도로 연비(km/L)	13.9	12.7	17.8
CO2(g/km)	163	172	87
등급	4	4	1

2014 EXPLORER

	XLT	Limited
엔진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Ti-VCT 엔진
트랜스 미션	6단 자동변속기	선택트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구동 방식	F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7	7
공차 중량(kg)	2,130	2,230
복합 연비(km/L)	8.9	7.7
도심 연비(km/L)	7.8	6.7
고속도로 연비(km/L)	10.7	9.4
CO2(g/km)	200	235
등급	5	5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Ford Network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8개의
전시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5개의 포드 ·
링크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쿼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2013년 9월 기준



SHOWROOM

서울	삼성 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9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9-22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7-1	02-535-3800
	미아 전시장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30 동일하이빌뉴시티 1층	02-6355-1000
	강북 전시장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8-11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0-11	02-2063-6300
	송파 전시장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2-5 포드빌딩	02-6928-3000
경기	방배 전시장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01-1 장산빌딩 1층	02-6929-3000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116-16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81-2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02-7	031-714-2004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1-6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05-3 한화생명 빌딩 1층	031-8034-1000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기능동 88-2	031-822-1000
인천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17-10	032-832-0001
충청	대전 전시장	대전시 서구 용문동 257-7	042-823-2000
	천안 전시장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24	041-562-0007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시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64-1	051-758-0075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83번지 센텀Q	051-741-5114
울산	울산 전시장	울산시 남구 옥동 252-7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65-10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000-5	053-766-2000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시 서구 양동 391-43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3-6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679-1	033-762-0040

SERVICE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38-11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0-11	02-3661-0011
	삼성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9	02-3443-4500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9-22	02-3444-1304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5-1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82-5 포드빌딩	02-2039-3001
	분당 서현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02-7	031-701-7004
경기	일산 지정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64-2	031-913-2913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81-2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901-6	031-360-1500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기능동 88-2	031-8030-1000
인천	인천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6-46	032-863-6080
충청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시 서구 정림동 8-61	042-585-5484
	천안 서비스센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50-24	041-563-0009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509-107	051-758-0046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65-10	055-715-3003
울산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시 남구 옥동 252-7	052-261-3388
대구	대구 서비스센터	대구시 북구 노원3가 32-1	053-355-7668
광주	광주 서구 서비스센터	광주시 서구 양동 391-43	062-515-1020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3-6	063-252-5400
강원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679-1	033-762-0041
	강릉 지정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21-11	033-651-9006
제주	제주 지정 서비스센터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2469	064-759-1472

하와이안 항공, 이웃섬 왕복 무료

인천-호놀룰루 매일 운항

하와이의 모든 섬을 향한 여러분의 꿈을 알로하 서비스로 매일 새롭게 펼쳐드립니다.
편리한 스케줄로 출·도착시의 여유로움을 두 배로 즐겨보세요.



편명	구간	요일	출·도착
HA460	인천 - 호놀룰루	매일	22:00-11:40
HA459	호놀룰루 - 인천	매일	11:15-16:35+1

상기 스케줄은 예고없이 변동 될수 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의 강점

- 이웃섬 (마우이, 리후에, 힐로, 코나) 을 무료로 포함한 요금
- 국제선 이용시 호놀룰루에서 무료 stopover 가능
- 주중, 주말 요금 동일
- 개인 항공권은 출발 24시간이내에 Hawaiianairlines.co.kr 에서 웹 체크인 가능

· 예약 발권 02-775-5552 · 영업부 02-777-5088





- 1860 창립자 에드워드 호이어 스위스 쥐라 산맥에 워크샵 설립
- 1916 세계 최초로 1/100초 측정 가능한 기계식 스톱워치 출시
- 1963 책 호이어 첫번째 까레라 시리즈 디자인
- 2013 자사 무브먼트 칼리버 1887 탑재한 새로운 까레라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출시

제품 및 AS 문의 태그호이어 부킹 상담원 02-548-6020~1 롯데호텔 소공점 02-778-9018
 갤러리아 EAST 수원점 인천 센텀시티점 대전 타임월드점 롯데백화점 에버뉴점 장신점 영등포점
 노원점 대구점 울산점 부산점 부산 센텀시티점 부산 광복점 신세계백화점 분점 강남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송정점 부산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분점 무의역점 옥동점 신촌점 천호점 대구점
 AK몰리자 분점점 수원점 대백프라자 명보사
www.tagheuer.com/kr



TAGHeuer
 SWISS AVANT-GARDE SINCE 1860